Weekly 공감

2009 10.28
No.34(통권 135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쌀맛 나는 세상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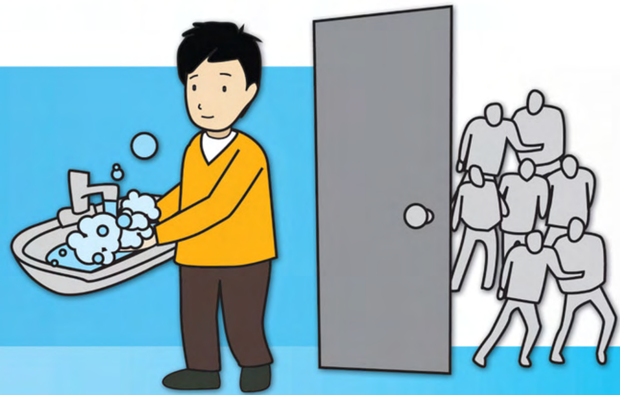
한-베트남 '새로운 협력시대' 열다
신종플루 백신 접종, 건강한 몸으로 받으세요
상품수지 흑자 세계 2위… 일본 앞질렀다
농구 코트에도 다문화 바람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www.cdc.go.kr

함께 지켜주세요

우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업 잠재력 무궁 껍질을 벗고 날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우리는 농어업의 단면만 보고 돈이 안 되는 산업이고 농어촌은 낙후된 곳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농어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는 없다. 반도체, 선박 등 세계 1등 품목을 1백21개나 보유한 세계 12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농어업은 가능성이 없는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포도산업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FTA 발효 후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오히려 늘고 가격도 발효 전보다 높아졌다. 품질을 높이고 가공을 통해 포도 농가의 소득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한우 농가는 모두 망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우는 이제 오르는 가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국내산 쇠고기 점유율도 2007년 46.4퍼센트에서 지금은 50퍼센트에 이르렀다. 품질을 고급화하고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제 등의 안전장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불안을 신뢰로 바꾼 것이다.

이제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통혁신을 통해 적정가격을 유지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와 경쟁해도 지지 않을 것이다. 주한 외국대사 한 분도 한우가 일본의 와규와 비교해도 맛과 품질이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시장 개방을 이겨내온 우리 농어업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규모에 비해 우리 농어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곡물 생산성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고, 쌀 생산량은 13위다. 해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도 많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파프리카와 밤이 부동의 1위다. 배는 대만에서, 버섯은 중국, 네덜란드에서 1위다.

우리 농어업의 잠재력을 세계에 선보일 좋은 기회도 있다.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1백만 도시가 60개가 넘는 매력적인 시장이 우리에게 있다.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경제성장으로 고품질, 기능성 식품 등 고급상품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력이 있다고 모두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있다고 다 팔리는 것도 아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다. 남들과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현재 상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고 우리 농어업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농협 개혁이나 농어업 선진화 방안이 그런 것이다. 익숙한 것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농어업에 관계된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스스로 껍질을 벗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애벌레가 탈피하여 나비가 되듯이 말이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10.28_No.34(통권 1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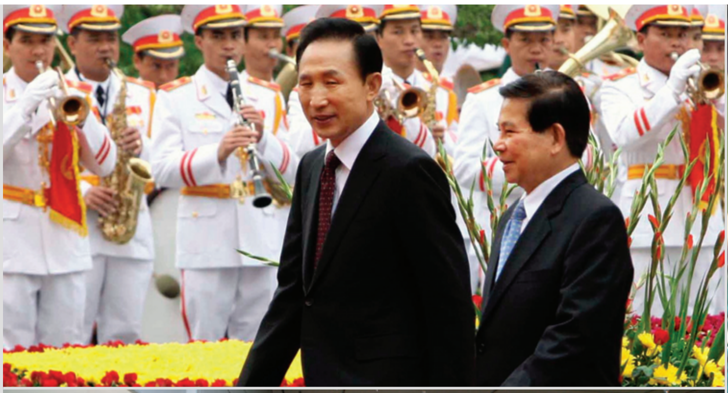
20

기획특집

가고 싶은 그곳…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농심(農心)은 천심(天心)이라 했다.
때로는 시련 앞에 농심이 멍들 때도 있지만
결실의 풍요로움이 돌아가기를…
그래서 다시 내년 농사를 기약할 수 있기를….
수천 년간 농부의 터전이었던 들녘은,
하늘은 말하고 있다.

표지 설명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척마을의 다락논에도 황금빛 가을이 깃들었다. 경사진 자투리땅들을 알차게 이용해 층층이 만든 다락논은 쌀 수확이 절실했던 시절의 산물. 지금은 '순천의 보물'로 불리며 지역 명물이 되어 있다. (촬영 · 윤치인)



08



14



58

Weekly 공감

발행일 2009.10.2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창조의 전략을 세우자


"서민 대상 범죄 뿌리 뽑겠다"

●● 〈Weekly 공감〉 33호(10월 21일자) 기획특집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와 관련해 독자들이 올린 댓글입니다.

"합법적인 다운로드는 권장해야죠. 우리나라에도 저작권이 있는 작품은 당연히 유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굿 다운로더 캠페인에 스타들이 함께했다고 하니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어요."_ 두루누리

"우리나라는 예부터 문화를 사랑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나라입니다. 땅덩이는 작지만 정보기술(IT)과 각종 첨단기술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인 문화와 IT가 잘 결합해 더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_ 김미숙

"문화는 여유이며 기쁨이다. 문화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문화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그동안 이해가 안 되었는데 기사를 보고 쉽게 이해가 되었다. 4대강과 역사문화자원이 이처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나부터 문화자원을 소중하게 다루고 가꾸는 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의 문화 외교관이 돼야 할 것이다."_ 최병화

"소외층 아이들을 '청소년여행문화학교'에 초청한다는 기사를 보니 참 좋네요. 고맙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도시를 떠나 자연을 느끼며 또래와 어울려 멘터와 함께하는 여행은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일 겁니다. 이런 좋은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습니다."_ happymam

●● 〈Weekly 공감〉 33호 '서민 대상 범죄 뿌리 뽑겠다' 기사에 대해 '조두순 사건'과 연결지어 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기간을 더 늘리고 앞으로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 등에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시점에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총수로부터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여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겠다'는 결의에 찬 인터뷰를 기획한 것이 정말 좋았다."_ 김용준

●● 〈Weekly 공감〉에는 여행작가 양영훈 씨의 '걷고 싶은 길'이 연재물로 실리고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여행정보를 얻고 있다는 독자 최양경 씨가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걷고 싶은 길'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 실린 경남 통영 사량도는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이번 주말엔 열 일을 제쳐두고 가족들과 다녀오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상의 피곤을 날려버리고 오겠습니다.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주는 작가와 〈Weekly 공감〉에 감사드립니다."_ 최양경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면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식재료는 냉장고 보관에 알맞은 양만 구입합니다. 냉장고 보관 음식이 10퍼센트 증가하면 전기는 3.6퍼센트 더 소모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철저하게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면 퇴비나 사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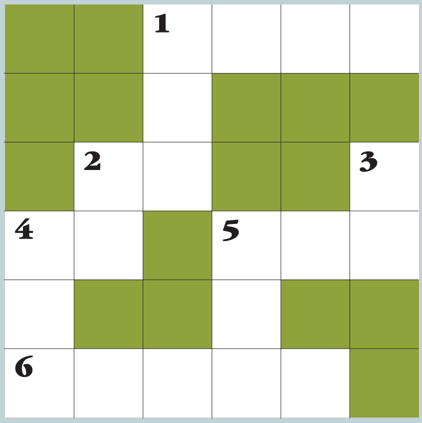
갯벌의 아름다운 추억, 사진으로 남기세요

국토해양부, 제2회 갯벌사진 공모전

국토해양부는 우리의 중요한 해양자산인 갯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갯벌 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갯벌사진 공모전과 갯벌정보시스템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

주제		추억이 담긴 갯벌 이야기
분야	사진	사진에 담긴 추억 및 이야기가 잘 어우러진 작품
	명칭	갯벌의 특성을 잘 나타내 시스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작품
자격		대한민국 국민
접수		11월 18일까지
접수처		갯벌정보시스템(tidalflat.go.kr)
문의		갯벌사진 공모전 담당자 031-436-0346
발표		12월 4일
시상	사진	대상(1명 · 1백만원 상품권)
		금상(1명 · 50만원 상품권)
		은상(2명 · 30만원 상품권)
		동상(3명 · 20만원 상품권)
		장려상(10명 · 10만원 상품권)
	명칭	금상(1명 · 50만원 상품권)
		은상(1명 · 30만원 상품권)
		동상(2명 · 10만원 상품권)

공감 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1월 4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32호(10월 14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부전자전 4 중심 5 무대 8 리더십 9 의장국

세로 1 자부심 3 전무 4 중거리 6 대한민국 7 가십

〈Weekly 공감〉 32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선중(경남 통영시 항남동)
마혜리(전남 목포시 산정동)
윤병열(경기 고양시 덕양구)
이인재(강원 원주시 단계동)
황춘니(서울 성북구 석관동)

가 로

1.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더 낫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는. "두 팀이 OOOO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
2. 주로 산지에 심는 볏과 식물. 열매는 먹거나 가축의 먹이로 씁니다.
4. 전남 진도 출생의 한국화가 허건(1908~1987)의 호.
5.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메뉴. 세계인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항공사의 '국가대표 기내식'으로 자리 잡은 지도 오래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죠.
6. 하늘 아래 가장 근본이 된다는 말. 農者OOOOO.

세 로

1. 최근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주. 최근 이것의 기능성과 효능, 품질 개선 등을 통한 세계화 노력이 한창입니다.
2.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OO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3. 보리로 지은 밥도 아니고 다른 잡곡으로 지은 밥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고기 반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OO을 먹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다."
4. 강원도 강릉, 양양 등지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물줄기. 동해에서 회귀하는 연어로 이름난 곳이죠.
5. 선녀가 날아갔다는 전설이 서린 설악산의 바위 봉우리. 단풍이 어우러지면 더욱 절경을 이루죠.

독자 ♥ 공감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박수영(31) 씨는 지난 4월 결혼한 새내기 주부다. 학교 상담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내년 4월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출산육아 정책에 할 말이 많다며 '독자 공감' 참여를 희망했다.

● 정기구독자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방문할 일이 종종 있어요. 교육청 민원실에서 처음 〈Weekly 공감〉을 접하게 됐는데, 내용이 알차고 좋은 것 같아서 정기구독 신청을 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나요.

따뜻한 정부 정책과 핫이슈들, 예를 들어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등 실제적으로 서민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차게 알려주고 있어서 좋아요. '공감 라운지' '공감 마당' '독자 공감' 등 독자들의 소리에 다양하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도 호감이 가고요.

● 임신부여서 정부의 출산정책에 특히 관심이 많겠군요.

출산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고운맘카드' 라고 해서 임신부에게 총 20만원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그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과거엔 기형아 검사 같은 세밀한 검사들을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혜택이 사라졌어요. 일반 병원에서 해야 하니까 전체 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임신부와 산모,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나 교육상품 등의 경우 면세 혜택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서민들로서는 가격 부담이 크거든요. 임신부와 산모, 아이들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해주는 출산 바우처 정책을 펼치면 출산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기획특집에서 다룬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

정원호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 '폐지 모아 기부하는 김윤섭 씨' 기사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빠듯한 점심시간을 남을 돕기 위한 시간으로 할애하다니…. 이건 그냥 적은 월급을 쪼개 기부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소외지역 순회공연, 찾아가는 문화버스, 문화콘텐츠산업에 정부가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니 앞으로 모든 국민이 쉽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아무쪼록 문화에서만큼은 소외계층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3. 새롭게 바뀐 한강에 대해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소도시의 좋은 정책이나 지역의 제도에 대해서도 다뤄 전국 곳곳에 살기 좋은 곳이 많다는 점을 알려주었으면 한다.

신소영 전북 남원시

1. 강희락 경찰청장 인터뷰에 먼저 관심이 가더군요. 힘없고 나약한 어린이를 잔인하게 짓밟은 '조두순 사건' 이 다시금 떠올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다시는 이러한 추악하고 파렴치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믿어요. 한글을 디딤돌로 세계 각국과 교류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 사람 사는 냄새와 꾸미지 않은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병수 대전시 동구

1. '한 · EU FTA 협정문 가서명'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한 · EU FTA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기 바란다.
2.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3조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정부가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많이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3. 외국어고를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려 한다는데, 외고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한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28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 마당' 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2. 이번 주 기획특집 '푸른 농촌 희망 찾자' 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10주 동안 열리는 '어린이 호신술 학교'를 통해 아이들은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키울 수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어린이 호신술 학교

얍! 어리다고 노리지 말아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월 20일부터 '열린 어린이 호신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초등학생 30명을 선정해 10주에 걸쳐 매주 한 시간씩 호신술을 무료로 가르쳐준다.

아이들은 이 교육을 통해 아동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기본기 등을 배울 수 있다. 이날 아이들은 부상 방지를 위해 간단히 스트레칭을 한 뒤 낙법과 발차기 등을 배웠다.

아이들을 사로잡은 호신술 하이라이트는 손목을 잡아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 제 키보다 큰 친구들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경찰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따라 했다.

한 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호신술을 배운 아이들은 "건강도 지키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어서 좋다"며 앞으로 남은 교육도 열심히 배우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내비쳤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 경무과 Tel **02-449-0560**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응웬밍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우의를 다지는 악수를 하고 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격상

"新아시아 구상 실현 핵심 고리"

이명박 대통령은 응웬밍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고, 베트남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보장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진정한 동반자 시대를 열게 됐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응웬밍찌엣 베트남 국가주석은 10월 21일 베트남 하노이시의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오는 2015년까지 교역액을 2백억 달러로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경제 통상 분야의 협력관계 강화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과 베트남은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시대를 열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찌엣 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미국과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외교 관계를 의미한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에서 확정됐다"면서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 걸친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베트남 시장경제지위 인정 등 경제 분야 진전

베트남은 이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아시아 외교'의 주요한 거점국가다. 따라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됐다는 것은 신(新)아시아 구상을 실현하는 핵심 고리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우선 외교, 안보, 국방 분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연례 차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국제무대에서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은 2010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베트남은 그동안 한국과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중시하면서도 북한과는 사실상 동맹국 수준의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이 군사교류를 포함해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통한 비핵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동아DB



동아DB

김윤옥 여사가 하노이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 · 베트남어 실용 핸드북을 전달하고 있다(위). 베트남 국립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명박 대통령(아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관계는 큰 진전을 이뤘다. 양국의 교역액은 1992년 수교 당시 4억9천만 달러에 그쳤지만 지난해 98억4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도 포스코 냉연공장,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을 포함해 누적 투자액이 2백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규모는 대만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베트남 이주민 지원 등 문화교류 확대

한국은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MES · 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했다. 시장경제지위란 상대국이 시장경제국가라는 점을 공인해주는 것으로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덤핑 제소'에 대한 보호막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덤핑 제소 등 무역보복에서 다소 자유로운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찌엣 국가주석은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에 긴요한 방송통신과 인프라, 플랜트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하고, 베트남의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베트남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강 개발사업과 호찌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와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신설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보장하기로 명문화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일본의 '경제 파워'를 추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하노이 현대화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10년간 70억 달러가 투입되는 홍강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2005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베트남의 요청을 받고 한강 개발 경험을 토대로 청사진을 제공한 바 있어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양국 정상은 이 밖에도 자원, 에너지, 녹색성장, 과학기술, 노동, 문화, 관광, 인적교류 등 전방위 협력에 합의했다. 또한 두 나라 관계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국민 간에 돈독한 우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한국사회에 정착한 베트남 배우자와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양국 국민 간에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와 태국을 방문했다. 태국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잇단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문제 공조와 기후변화, 녹색성장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고 공조를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아세안 3개국 방문에서 신아시아 외교를 구체화하는 성과를 얻고 10월 25일 귀국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캄보디아 경제발전 인큐베이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경제 발전의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하게 됐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2일 프놈펜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캄보디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을 내년부터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 발전의 플랜을 세울 때 개발의 시스템, 즉 표준화를 우리 측이 함께 마련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농업국인 캄보디아 실정에 맞게 농업기술개발센터를 설립,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내년 말 개장 예정인 증권거래소 설립을 돕는 등 기업 육성 및 금융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 지원 규모를 최대 2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하세요”

신종플루 백신 접종 실시… 11월 중순 학생들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접종 대상자 예방 접종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료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전 국민의 35퍼센트, 1천7백만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대장정에 들어간다.

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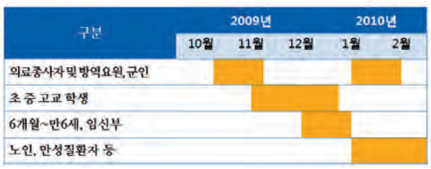


10월 27일부터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신종플루 확산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플루 안전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과거 계절독감 접종 후 부작용이 생겼거나 달걀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접종받지 않도록 한다.
2.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접종을 연기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한다.
3.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고 접종 일정을 지킨다.

대상자별 접종 시기



* 의료 종사자와 방역요원, 군인은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부 대상자만 연내 접종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접종한다.
* 대상자별 백신 접종 시기는 백신의 허가, 생산 등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종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역요원, 환자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부 군인에게 가장 먼저 접종을 하고 이어 초중고생, 6개월~만6세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과 만성질환자 순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유행을 억제하고 감염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의 35퍼센트인 1천7백16만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종플루 백신 임상실험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1회 접종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돼 백신 접종 대상은 당초(1천3백36만명)보다 4백만명가량 늘었다. 소아 접종을 1회 혹은 2회로 할지 여부는 소아 임상실험이 마무리되는 10월 말 결정된다.

백신 접종 대상별 인원은 △의료 종사자와 전염병 대응요원 등 80만명 △영·유아와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8백20만명 △초중고생 7백50만명 △군인 66만명이다. 향후 유행 추이에 따라 일부 계층이 국가접종 대상자에 추가될 수 있다.

접종 순서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염 위험성과 전염차단 효과가 큰 순서로 결정됐다. 접종 시기는 의료·방역요원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초중고생(11월), 영·유아와 임신부(이상 12월) 순으로 접종하고 내년 1월부터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일반인 접종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능

접종 방법은 건강한 노인과 위탁의료기관 접종 대상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보건소에서, 초중고생은 보건소의 학교 예방접종팀이 학교를 방문해 무료 접종을 한다. 영·유아와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시행한다.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백신 값은 받지 않지만 1만5천원 수준(의원급 기준)의 접종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반인이 접종할 수 있는 정부 구매분 이외 백신은 허가가 나오는 대로 민간의료기관에 유통될 예정이어서 허가 기간을 고

려할 때 일반인 접종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구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신종플루 접종자의 70~80퍼센트가 접종 후 8~10일 내 방어면역이 생성된다"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신종플루의 확산이 어느 정도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 생산한 신종플루 예방백신 '그린플루-에스'를 10월 21일 최종 허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8번째 신종플루 백신 자체 개발 생산국으로서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에 허가된 백신이 지난 6월 시제품 생산에 착수, 그동안 동물실험 과 임상실험 등을 모두 끝냈으며 이미 신종플루 백신이 허가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엄격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녹십자의 신종플루 예방 백신은 당초 2회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임상실험 결과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회 접종(15마이크로그램)만으로도 국제기준에 맞는 면역원이 생성되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당초 계획보다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백신의 항체 생성률은 15마이크로그램 1회 접종만으로도 성인(18~65세 미만)과 고령자(65세 이상)에서 각각 91.3퍼센트와 63.4퍼센트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백신효과 평가 기준인 70퍼센트 이상(성인)과 60퍼센트 이상(고령자)을 만족하는 수치다.

성인과 고령자 4백7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8주간 진행된 임상실험 결과 항체 생성률과 부작용도 최근 선진국에서 진행된 신종플루 백신 임상실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부작용도 대부분 주사 부위 통증이나 피로 등 가벼운 증상이고,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나타나지 않아 안전성 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녹십자가 개발한 신종플루 예방백신 '그린플루-에스.'
이 제품 개발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신종플루 백신 자체 개발 생산국이 됐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 Q&A

신종플루 예방접종 전후 어르신 주의사항

▶ 예방접종을 받으러 갈 때는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 예방접종을 위해 장시간 서서 기다리지 마세요.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만성질환이나 아픈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접종을 받기 전 말씀하세요.
▶ 예방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최소한 사흘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빨갛게 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하루 이틀 이내에 사라집니다.
▶ 예방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Q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면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종플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보건소나 학교 접종 대상자도 예방접종을 받을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민간 병·의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나 학교 예방접종은 무료이지만 민간(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접종비(의원급 기준 1만5천원)는 본인 부담입니다.

Q 신종플루로 진단받아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나요.

A 정확한 검사방법(PCR)으로 신종플루 판정을 받은 확진환자는 방어면역이 생성됐으므로 예방접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나 임상적인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경우는 '확진'이 아니므로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면 예방접종을 권합니다.

Q 초중고생을 우선 접종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A 신종플루 감염자의 50퍼센트 이상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며, 이들 연령대에서는 신종플루가 집단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은 가장 주된 신종플루 전파 감염원으로서 가족 내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빨리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전체 감염자 수와 유행 규모,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이유는 뭔가요.

A 65세 이상 연령군은 신종플루 감염자 중 1퍼센트 정도로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현재 신종플루 확산에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초중고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접종 초기에는 신종플루 백신이 충분치 않아 신종플루 확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이 권고됩니다.

Q 신종플루 예방접종 때 고령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고령자가 예방접종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어르신 주의 사항을 지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음주 폭력·어린이 성폭력, 치료로 근절

부산경찰청, 주취자 치료·보호 프로그램 시범 실시

죄를 벌로 다스려 세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모든 범죄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벌에도 불구하고 많은 범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알코올중독자의 소란행위에서부터 성폭력이라는 중범죄까지, 상습 반복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치료를 통한 근절이 모색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시범 운영한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이 곧 전국에 확대 실시된다.

#1 지난 7월 15일 부산 사상경찰서 주례지구대. 인근 마트로부터 "만취 여성이 우리 종업원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만취해 난동을 부린 이가 낯익은 남모(37·무직) 씨인 것을 알았다. 남 씨는 수시로 술에 잔뜩 취해 지구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이웃들에게 시비를 걸어 인근 주민의 원성이 자자했다.

남 씨의 난동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게 이날 하루만 무려 7건에 달했다. 게다가 남 씨 본인이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상태였고, 자신이 임신한 상태라고 주장해 난감한 상황이었다. 결국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남 씨를 일단 입원시킨 경찰은 다음 날 술에서 깬 남 씨를 설득,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했다.

#2 지난 7월 23일 만취해 정신을 잃고 길가에 쓰러져 있던 박모(52·무직) 씨도 부산 연제경찰서 토곡지구대의 도움으로 부산의료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정신병원에 입원, 알코올중독을 치료 중이다. 알코올중독 치료 경력이 있는 박 씨가 다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말썽을 빚어 박 씨의 보호자와 이웃들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 씨의 아들(27·대학생)은 "아버지에게 알코올중독 치료가 재차 필요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거부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적극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말했다.

술만 취하면 이웃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해 일시적인 보호조치나 규제 대신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알코올중독 치료가 시행된 것은 지난 7월 15일~10월 15일 부산지방경찰청이 시범 실시한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이 부산시의사회, 부산의료원, 119구급대와 합동으로 시행한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중 '만성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행동장애 증상'을 보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하에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이송, 치료와 보호를 하고 술이 깬 다음 귀가시키거나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했다.

3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 20명이 치료보호를 받았고, 이들 중 알코올 의존성 정신질환을 가진 10명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은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된 것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알코올중독자들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근본적인 치료를 받게 하고 재활훈련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기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상황반에서는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소수로 제한했으며, 반드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지켜왔다.

'상습 주취 소란자'란 △술에 취해 수차례 통고처분·즉심회부됐거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 등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치

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여건이 안 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이웃주민들에게 행패, 난동을 부려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112신고 또는 일반신고)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지구대에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업무를 방해하고 주취 소란, 난동을 부리는 사람 △만취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구대 업무 중 주취자 처리 비중은 연간 26.6퍼센트에 이르며, 처리 비용도 약 5백억원이 소요된다. 또 공무집행방해범죄의 51.1퍼센트가 주취에 의해 발생하며, 순찰차 등 기물파손 건수도 1천2백 건에 이르고 있다. 심한 경우 만취자가 경찰관을 살해하는 경찰 위해 사건도 잇따라 주취자는 경찰력 무력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정규열 생활안전계장은 “프로그램 대상자 10명 중 9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이들에겐 최장 3개월까지 국비로 치료보호와 입원치료를 받게 해주었다”며 “11월 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에 제출해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성폭력 범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실시하는 치료감호제도를 도입,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성폭력 범죄자 치료감호를 실시 중이다.

치료감호 범위 넓혀 재범 위험 높은 성범죄자에게도 적용

기존의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나 약물,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치료감호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치료감호 범위에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감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개정돼 지난해 6월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된 치료감호법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시설 일부를 성폭력 범죄자 전담 치료·재활센터로 운영해오고 있다.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20대 성폭력 범죄자가 지난 5월 4일 처음 입소한 이래 이곳에서 현재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인원은 9명. 이 밖에도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 채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12건 더 있어 이들도 재판이 종료되면 이곳 치료감호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최대 1백명 수용 규모인 이곳 치료감호소에는 전문의와 간호사 등 11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집단 정신치료와 인지행동치료, 충동·분노 조절 등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치료감호소를 운영한 미국의 문헌 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치료를 받지 않은 범죄자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폭력 범죄 교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 효과도 높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치료감호소를 운영한 미국의 문헌 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치료를 받지 않은 범죄자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자 전문 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콜링가 주립병원의 치료 프로그램도 5단계로 구성돼 평균 5년 1개월이 소요된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의료부 오민영 사무관은 “외국 사례들을 봐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3~5년은 시행해야 행동에 변화를 보이는 가시적인 치료효과가 나타난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는 상습 주취자는 경찰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


2


3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선물 받았을까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 특별전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재임 중 외국 정상 등에게서 받은 선물과 평소 사용하던 물건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10월 29일까지 열리고 있는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 특별전에서는 1960~70년대 우리나라 외교사의 족적을 엿볼 수 있다.

아폴로 11호가 가져온 월석(月石)이 담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기념패,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이 보낸 선녀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현장의 미루나무로 만든 토막패….

국가기록원이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고 있는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전시품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유가족이 1984년 국가에 기증해 국립민속박물관이 보관하다 지난 7월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진 4백87점 중 2백여 점. 국가기록원 노영종 연구관은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대통령이 재임 중 외국 정상 등에게서 받은 선물과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눈길을 끄는 선물로는 1970년 4월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보낸 아폴로 11호 월석 기념패가 있다. 태극기와 진공 유리 반구(半球)에 월석 네 조각을 넣어 만든 것으로, 태극기는 미국 정부가 우방국에 대한 예우로 달에 싣고 갔다가 가져온 것이다.

선녀 얼굴과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이 그린 듯 섬세한 선녀도는 평양 만수대 창작사가 자수로 만든 작품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조율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통해 김일성 전 주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청자목문(青磁牧文) 항아리도 김 전 주석의 선물로 1976년 남북적십자회담 때 대표단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미루나무 토막패는 1976년 8·18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있던 미루나무를 토막 낸 뒤 사진과 글을 새겨 넣은 것으로 리처드 스틸웰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선물이다.

이 밖에도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백마상과 말안장, 장제스(蔣介石) 전 타이완 총통이 증정한 돌사자상, 태국의 타놈 전 총리가 선물한 상아로 만든 승전고, 호주의 홀트 전

1.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말안장.
2.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보낸 청자목문 항아리.
3. 타놈 전 태국 총리가 선물한 상아로 만든 승전고.
4.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아폴로 11호와 함께 달에 갔던 태극기와 월석.
5.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집무실 책상.
6.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 특별전시회는 도입부, 선물관, 유품관, 영상관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전시된다.
7. 장제스 전 타이완 총통이 선물한 돌사자상.
8.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선물한 선녀도.


4


5


6


7


8

총리가 선물한 진주 장식함 등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다.

이번 전시는 세계 42개국 정상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1960~70년대 외교 행보를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전시회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이 기록물들은 개인 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사의 족적이고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70년대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약소국이었고 외교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다"며 "한 나라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번 전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서재에서 사용하던 책상, 결재용 받침대 등과 함께 '유비무환(有備無患)' 친필 휘호와 육영수 여사가 사용하던 소파 등도 당시 모습대로 재현됐다. 또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대부인 재미 과학자 김완희 박사가 박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친필 서한 5점이 공개됐고, 박 전 대통령의 주요 업적과 사진 등을 모은 영상물도 관람할 수 있다.

박상덕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 기록물은 국민의 소유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전을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역대 다른 대통령들의 선물과 유품도 정리가 되는 대로 전시회를 열어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시장에는 대통령 기록물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범국민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기증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기증 접수창구'도 운영한다. 기록물 기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Tel **031-750-2147 www.pa.go.kr**

상품수지 흑자 세계 2위

2009년 상반기 266억 달러… 사상 첫 일본 추월

한국이 올 상반기 상품수지 흑자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따돌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올해 상반기 상품수지 흑자는 2백66억 달러로 독일(7백19억 달러) 다음이었다.


동아DB



자동차, 휴대전화 등 다양한 상품이 해외 각지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 상품수지 흑자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980~1990년대 부동의 제조 왕국이었던 일본은 2000년까지 상품수지 흑자가 전 세계 1위였다. 그러다가 2001년 독일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뒤 지난해에는 5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항상 많았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OECD 국가 중 7~9위권을 맴돌다 유가가 치솟아 수입액이 급증한 지난해에는 11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당당히 91억 달러의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다.

원동력이 뭘까. 상품수지란 자동차나 휴대전화 같은 제품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이다. 상품수지 흑자액이 많다는 것은 수입은 적었고, 수출은 많이 했다는 이야기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수입이 급감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결국 한국이 상품수지 흑자 2위에 오른 것은 수출 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한국의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선전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올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22.8퍼센트 감소했지만 37.3퍼센트 줄어든 일본에 비하면 좋은 성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렇다. 그 결과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한국 수출은 상반기에 러시아, 영국, 캐나다를 제치고 9위에 올랐다. 한국 수출이 선방한 요인은 환율과 수출지역 및 품목의 다변화다. 일본은 사상 유례없는 엔고로 수출이 확 꺾였다. 반면 한국은 올 상반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엔고로 인해 일본 제품과 비교한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LCD,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1~7월 한국 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7.4퍼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5.4퍼센트)보다 2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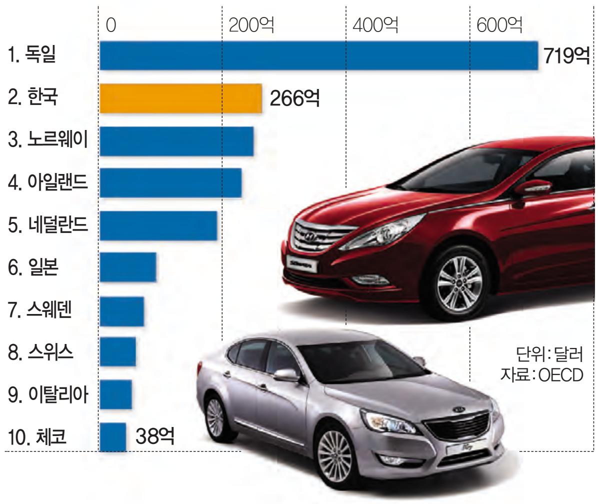
원화 가치 하락세에 가격 경쟁력 높아져 '수출 덕'

한국 차의 질주에 일본 혼다자동차의 이토 다카노부(伊東孝紳) 사장조차 이달 초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두렵다"고 했을 정도다. 수출지역과 품목이 다양한 것도 버팀목이 됐다. 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중동, 신흥시장에 골고루 수출을 한다. 금융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신흥시장과도 거래가 많다. 이에 비해 일본은 수출지역이 미국과 EU 등 금융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선진국 시장 위주여서 타격이 컸다.

한국은 또 '주력 품목'이라고 할 만한 것도 선박, 휴대전화,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LCD, 가전 등 다양하다. 반면 일본은 기계, 자동차 두 품목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구조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꺼려 기계류를 잘 사지 않고, 자동차 판매도 급감하자 수출 전체가 흔들렸다. G

글 · 권혁주(중앙일보 경제부문 기자)

올해 상반기 OECD 회원국 상품수지





10월 2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은퇴식에서 감회에 젖은 이봉주 선수와 가족들.

가슴이 뭉클하다… 이봉주!

전국체전 우승 '금빛 은퇴'… 20년간 41회 완주 대기록

이봉주 선수가 전국체전 마라톤에서 우승하며 마지막 레이스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비록 레이스를 멈췄지만 좌절과 포기를 몰랐던 그의 마라톤 인생은 국민들 가슴에 영원히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봉달이' 이봉주(39·삼성전자)의 마라톤 인생이 10월 21일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이날 열린 제90회 전국체전 마라톤에서 이봉주는 고향인 충남대표로 출전해 2시간15분25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 마지막 레이스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봉주는 이날 41번째 풀코스를 뛰었다. 세계 마라톤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기록이다.

그의 마라톤 인생은 오뚝이를 닮았다.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황영조 선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한 뒤 미련 없이 선수 인생을 접었다.

반면 이봉주는 2등으로 레이스를 마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올림픽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은근'과 '끈기'로 대변되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듯한 그의 모습에 국민들은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1993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호놀룰루국제마라톤에서 우승하며 세계 마라톤계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1996년 열린 애틀랜타올림픽에서 2시간12분39초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00년 도쿄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7분20초는 아직까지 한국 기록으로 남아 있다.

2001년 보스턴마라톤 1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1위 등 꾸준히 세계 정상급 기량을 보이던 이봉주는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14위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아프리카 철각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한 속도전을 펼쳐 마의 2시간 5분대, 4분대 벽을 잇따라 깨면서 이봉주의 시대는 가는 듯했다.

오뚝이 같은 마라톤 인생… 국민에게 희망 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혹독한 훈련을 거듭했다. 2007년 서울국제마라톤에서 막판 기적과 같은 역전 레이스를 펼치며 2시간8분4초로 우승컵을 안았다. 보스턴마라톤 이후 6년만의 국제대회 우승이었다.

양쪽 발의 크기가 다른 짝발이었던 탓에 남모를 통증을 앓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한국 마라톤을 10년 이상 홀로 이끌어온 이봉주. 순박한 미소와 함께 한눈팔지 않고 마라톤 외길을 쉼 없이 달려온 그의 우직한 모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G

글 · 최호열 기자



새로운 이야기

新話 창고

상상을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이야기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총상금 4억 5천만원! 대상 1억 5천만원!
당신의 이야기가 세계의 볼거리로 탄생하기까지,
전 과정 전폭 지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新·話·창·조·프·로·젝·트

www.storybank.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쌀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농촌

농심(農心)은 천심(天心)이라 했다.
농심이 담긴 가을 들녘은 하늘의 마음 그대로다.
때로는 자연이 주는 시련 앞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 농심이 멍들 때도 있지만
세상 누구보다 거친 손을 가진 농부에게 결실의 풍요로움이 돌아가기를,
그래서 다시 내년 농사를 기약할 수 있기를,
수천 년간 농부의 터전이었던 들녘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늘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경택 기자

인구 감소… 밥 안 먹는 세대…

농업, 세계로 나가자



동아DB

어딜 가나 쌀 풍년이지만 농촌은 되레 시름에 잠겨 있다. 가뜩이나 쌀 소비가 부진한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 하락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민과 농촌은 결코 외롭지 않다.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이 정부와 민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쌀 부족으로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며 도시락 검사를 하던 시절, 다수확이 목적이던 '통일벼'에 대한 기억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 쌀 풍년이 들었지만 농심(農心)은 쌀 소비 부진에다 풍작으로 쌀값 하락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백68만2천 톤. 평년작 4백57만 톤보다 11만 톤이 더 많다. 9월 말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입이 시작돼 '쌀값 하락'이 피부에 와닿으면서 농촌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월 26일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회원들이 나주시 남평읍에서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벌이는 등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박선우 서기관은 "정부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협이나 RPC의 매입 가격 인상을 정부가 결정할 수는 없다"며 "대신 시중 방출 물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농협이나 RPC의 매입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에서는 대북 쌀 지원 중단 등을 쌀값 하락 이유로 들고 있지만 주된 원인은 매년 1.8퍼센트씩 1인당 밥 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쌀 풍년이 들어 공급 초과가 심각해진 것이다.

"인구 감소·성장력 저하가 쌀값 하락 근본 원인"

하지만 현재 쌀값 하락에 대한 시위로 표출되는 농촌문제는 인구 감소와 성장력 저하라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다. 특히 2004년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한미 FTA 협상 서명(2007년 6월), 한·유럽연합(EU) FTA 가서명(2009년 10월) 등으로 농촌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지역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돼왔다.

정부와 민간에서 최근 농촌의 쌀값 하락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설렁탕에 쌀국수 사용을 호소하고 대형마트 사은품으로 쌀을 증정하는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농촌지역을 살릴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농촌경제를 발전시킬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최근 부상한 것이 한식 세계화다.

지난 5월 26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성장동력박람회 2009'에는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3대(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 서비스) 분야 17개 핵심





동아DB

5월 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식세계화추진단 출범식에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배우 배용준 씨 등이 한식 상차림을 둘러보고 있다(위). 한식 세계화의 대표 품목 중 하나가 비빔밥이다.

사업의 하나로 '한식 세계화 존'이 꾸며져 우수 전통식품과 해외 한식당 모델이 선보였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관은 지난해 농촌자원개발연구소를 한식세계화연구단으로 개편해 한식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 8월 15일 충남 금산 한국벤처농업대에서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과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가 기존의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전환하고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하나를 한식 세계화로 잡은 것은 식품산업을 육성하려는 조치"라며 "한국의 식품산업이 앞으로 3년 이내에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농업을 2, 3차 산업으로 전환할수록 부가가치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식 세계화는 '한식 식재료의 세계화'로도 이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15~19일 대한민국식재료수출협회 주관으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식재료 특별기획전'을 열고 1천8백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 식재료 수출의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막걸리와 전통주 복원 정책도 농촌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 전통주 복원,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전통주의 세계화 등이 담긴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를 '우리 술의 세계적 명주로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우리 술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천3백3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8년 4.5퍼센트에 그쳤던 전통주 시장 점유율을 2017년까지 10퍼센트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식 세계화·전통주 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해야

전통주 산업 육성은 한국 농가의 생산성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10킬로그램을 가공할 때 부가가치가 즉석밥인 '햇반'은 10만원, 떡은 12만5천원인 반면 증류주는 21만3천원일 것으로 분석했다.

김치산업도 농촌을 살리는 방안으로 강화되고 있다. 10월 22일 주한 외교사절 등 내외국인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광주김치문화축제는 정부의 김치 세계화 전략에 맞춰 대폭 확대돼 치러졌다. 이 축제는 내년 말 광주에 완공될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치는 치즈, 낫토(納豆), 요구르트와 함께 세계 4대 발효식품으로 한국의 발효과학을 대표하는 식품이다.

최근의 귀농인구 증가도 농촌지역이 활기를 되찾는 데 희망이 되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 귀농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는 농어촌을 포괄한 귀어·귀촌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박종민 사무관은 "농촌은 주거와 일, 쉴 곳이 구분되는 도시와 달리 삶터, 일터, 쉼터가 한곳에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농촌 활성화 대책은 단순히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 복지 등 농촌사회 전체의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시행돼야 농촌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가령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 8분 이내 도착, 소방차 20분 내 도달 등 삶의 질 측정 기준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충족에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금수강촌 사업'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수확한 벼를 팔기 위해 온 농민들이 경기 화성군 비봉면의 수라청 RPC 앞 도로를 따라 길게 줄을 서 있다.

"쌀 80kg 15만원 유지 총력"

34만 톤 추가 매입… 직불금으로 대부분 손실 보상돼

풍년임에도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보다 23만 톤 많은 2백70만 톤의 쌀을 매입하고, 11만 톤을 추가로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또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쌀 소비 촉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된 풍년과 소비 감소로 쌀 과잉공급 현상을 빚을 것으로 보고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23만 톤 늘리기로 한 데 이어 11만 톤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정부 비축미의 시장 공매를 중단하고 재고 쌀을 특별 처분해 적정 시장물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수요 확대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임정빈 식량정책과장은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백68만2천 톤으로 지난해의 4백84만 톤보다는 적겠지만 계속된 풍작으로 지역농협이나 민간도정업체의 매입심리가 위축돼 있어 농민들은 수확하는 벼의 판매가 어렵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민간 부문 233만 톤 등 총 270만 톤 매입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감안해 올해 쌀 매입물량을 대풍작이었던 지난해 2백47만 톤보다 23만 톤 늘어난 2백70만 톤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37만 톤이고 민간 부문 매입량은 2백33만 톤이다.

200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은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백30여 개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4천8백여 개의 정부 양곡창고 등에서 이뤄진다. 지난해와 같이 벼 1등급 기준으로 40킬로그램에 4만9천20원을 매입현장에서 우선지급하고 통계청이 조사한 수확기 산지 쌀값(10~12월)에 따라 내년 1월에 사후 정산한다.

임 과장은 "공공비축 미곡 매입으로 분산 출하할 수 있어 쌀값 하락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쌀값의 일부만 받고 추후 쌀이 팔리면 정산하는 '수탁판매'가 정착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탁판매를 늘리는 한편 지역농협 등의 매입 심리를 살리기 위해 매입자금을 9천1백87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확기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15퍼센트 이상 늘리는 경우 2010년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퍼센트에서 0퍼센트(무이자)로 낮춰주기로 했다.

●● 11만 톤 추가 매입 시장 격리… 가격 안정 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또한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작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만 톤 안팎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시장 격리란 정부가 쌀을 사들인 뒤 이를 시중에 방출하지 않는 것으로, 쌀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추가 매입은 공공비축용 쌀 매입 가격이 적용되고, 매입 방식도 공공비축미 매입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추가 격리하는 11만 톤은 정부의 공공비축량을 형식상 37만 톤으로 유지하면서 내용상으로는 48만 톤 이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정도를 격리하면 연간 수요에 비춰볼 때 과잉공급이 아니므로 농가들이 한 번에 쌀을 내다파는 홍수 출하를 하지 않는 한 쌀값이 불안해질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한 "10월 말 전체 쌀 재고량은 82만 톤이고 이중 정부 재고는 69만 톤으로 적정 공공비축 규모 72만 톤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또 "시중에서 우려하고 있는 2008년산 민간 재고도 9월 말 기준 10만 톤으로 10월 중에는 모두 팔릴 것으로 예상돼 재고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예상 물량이 시장에서 격리되면 쌀값이 80킬로그램당 2천원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곡물팀은 올해 쌀 생산량이 4백68만2천 톤이면 쌀값이 14만7천~15만원선에 형성되지만, 그중 11만 톤이 격리되면 14만9천~15만2천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비축미 비축·전년도 격리물량 방출 유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공공비축미 매입량 37만 톤 가운데 학교급식, 군수용 등으로 방출해야 하는 19만 톤의 공공물량을 제외한 18만 톤은 시장에 내놓지 않고 비축 격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농협중앙회를 통해 격리한 2008년산 쌀 10만 톤 중 잔여물량 5만 톤도 시중 방출을 유보했다.

아울러 2005년산 정부 재고쌀 중 10만 톤은 주정용(희석식 소주, 수입 타피오카 대체), 전분·당용(수입 옥수수 대체)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처분하기로 했다.

●● 쌀 가공산업에 100억… 향후 매년 400억 지원

매년 추수철마다 쌀값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가공산업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고추장, 떡볶이떡 등 밀가루 대체가 가능한 품목에 쌀 사용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2005년산 정부 쌀 가격을 1킬로그램당 1천4백46원에서 9백50원으로 낮췄다. 또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쌀 가공업체에 당초 지원된 60억원에 40억원을 더해 총 1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2010년부터는 매년 4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대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쌀 가공식품의 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월 1회 제공되는 떡과 쌀국수를 월 2회와 3회로 늘리고, 장병 생일에 쌀 케이크를 지급하기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또 건빵 등의 쌀 함량도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규격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에 대해서는 10월에 시도별로 1개 학교를 선정해 쌀자장면, 쌀국수, 쌀빵 등 쌀 가공식품을 급식으로 공급해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후 대상 학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한 농민이 1년 동안 애써 가꾼 벼가 특등품을 받자 기뻐하고 있다. 특등품 나급은 40킬로그램에 5만2천9백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찾아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자 조직이 참여하는 대형 쌀 유통회사를 육성하는 방안이나 쌀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박선우 서기관은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이 80킬로그램 당 15만원 내외일 경우 쌀 직불금 지급 후 농가수취가격은 80킬로그램 당 16만7천70원으로 목표가격 대비 98.2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가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내년 3월에서 2월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G

글·이혜련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한국인은 밥심! 아침밥을 먹자

쌀이 남아돈다.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쌀은 평년작일 경우에도 해마다 40만 톤이 재고로 쌓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다.



홈플러스와 농협은 9월 말부터 6개월 동안 국내 쌀 소비를 촉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나누미(米) 기부미(米)'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기금 1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쌀국수가 밀국수보다 맛이 깔끔하고 담백하네요. 희고 윤기가 흐르는 게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요." 지난 10월 1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설렁탕 전문점에서 '쌀국수 사리를 넣은 설렁탕 시식회'가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1백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쌀국수 사리를 맛보며 만족스럽다고 평했다. 시식회 이후 해당 음식점과 쌀국수 판매업체인 강원 철원 동송농협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연말까지 서울 시내에 쌀국수 사리를 사용하는 설렁탕 전문업소 10여 곳을 지정하고, 향후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성적인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업체가 손잡고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선 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년간 37퍼센트 줄었다. 쌀 소비량은 줄고있는 반면 평년작일 경우 해마다 40만 톤의 쌀이 남아돌아 쌀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각종 사업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쌀 소비 촉진 운동은 △쌀 가공식품 활성화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쌀 증정 또는 기부행사 등으로 나뉜다.

●● 쌀국수·쌀와인 등 쌀 가공식품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쌀 가공식품 시장은 전체 식품 제조 시장의 3퍼센트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가공식품용 쌀 소비량이 약 1백4만 톤으로 일본 내 쌀 생산량의 14퍼센트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연간 27만 톤으로 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까지 가공식품용 쌀 사용 비중을 쌀 생산량의 10퍼센트 수준(47만 톤)까지 높이기로 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가공업체에 제공하는 지원금은 1백억원이며, 2010년부터는 매년 4백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쌀 가공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해당 지역에서 재배되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 가공식품 지원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는 '플러스미(米) 프로젝트'라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는 쌀가루 클러스터, 웰빙떡 클러스터, 모닝 메이트 등 쌀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주류업체 '천년약속'과 공동 투자해 기장군 특산물인 흑미와 찹쌀을 발효한 한국형 레드 와인 '천년약속 레드 프라임'을 최근 출시했다. 포항시는 10월 20일 '포항시 쌀 소비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농협, 민간단체, 대형 유통업체 등이 참여해 쌀 소비 확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식음료 전문 업계에서는 쌀 가공 신제품 출시가 봇물을

농촌정보문화센터



'아침밥을 먹으면 건강하고 똑똑해져요'. 농촌정보문화센터에서 벌이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의 홍보 포스터다.

이루고 있다. 최근 출시된 농심의 '둥지쌀국수 뚝배기'와 삼양 '쌀라면'의 면발에는 쌀이 각각 90퍼센트, 30퍼센트 포함돼 있다. 풀무원의 '생가득 냉동볶음밥', 대상의 '우리 쌀로 만든 고추장', CJ푸드빌의 '우리 쌀 생크림 케익'은 원료로 국산 쌀을 사용한다. 한국인삼공사의 '홍삼을 그대로 갈아 넣은 홍근120'은 6년근 홍삼 뿌리 분말에 쌀 페이스트를 넣어 만든 건강 음료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업무 협력도 활발하다. 10월 초 농협중앙회는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대상, 풀무원, 동원F&B 등 6개 식품회사와 쌀 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농협중앙회는 6개 업체에 국내산 쌀을 공급함은 물론,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쌀 가공식품을 전국 2천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 '아침밥을 먹자' 소비 촉진 캠페인 펼쳐

'아침밥을 먹으면 성적이 쑥쑥 올라가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농촌정보문화센터에서 벌이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다. 농촌정보문화센터 김귀영 소비촉진팀장은 "아침밥을 먹은 학생의 수능 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침밥 먹기 서명운동에 올해 초부터 10월 22일 현재까지 25만1백26명이 서명하는 등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우리 쌀 사주기 행사도 열렸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0월 14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우리 쌀 사주기 1경(警) 1미(米) 운동' 행사를 열어 쌀 1백80여 포대를 팔아줬다. 김남성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쌀값 폭락으로 수심이 가득한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사랑의 쌀 나누기'로 어려운 이웃 돕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연초부터 9월 말까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22회 개최해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기증했다. 10월 14일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모금을 통해 '희망의 쌀' 4천 포대(4천3백만원 상당)를 나눔 가게인 '해누리 푸드마켓'에 기부했다. 김만덕기념사업회는 10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만덕 나눔쌀 만섬 쌓기' 행사에 기부된 쌀 3천5백만 섬을 국내 저소득층 가구와 해외 빈곤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9월 말부터 6개월간 농협과 공동으로 '나누미(米) 기부미(米)' 캠페인을 펼쳐 쌀 한 포대를 판매할 때마다 두 회사가 1백원씩 기금을 적립해오고 있다. 이 기금으로 쌀을 사들여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다. G 글 · 최은숙 기자



막걸리, 날다

한국 대표 술 막걸리가 '세계인의 술'로 날개를 달고 있다. 10월 9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내외가 가진 오찬에서 쌀막걸리가 건배주로 등장했다. 10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 초청 다과회에서는 쌀막걸리 칵테일이 공식 건배주로 선보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한일 전 노선에 쌀막걸리를 기내식으로 선보이고, 대한항공은 10월 20일 국산 쌀막걸리와 쌀을 사용해 만든 '막걸리 쌀빵'을 개발 완료해 조만간 국제선 간식 메뉴로 내놓기로 했다.

막걸리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8년 막걸리 수출액은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초부터 7월까지 막걸리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8퍼센트 늘었다. 수출 지역은 2008년 기준으로 91퍼센트가 일본이지만 미국, 싱가포르 등지로도 진출하는 추세다.

정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막걸리 제조를 지원하는 등 품질 고급화에 나선다. 현재 막걸리 제조에 쓰이는 벼 품종은 설갱벼 1종이지만 2012년까지 7종으로 늘리고, 쌀 원료 수매 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 기준 국내 술 시장에서 막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퍼센트(1천6백49억원)에 지나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7년까지 막걸리와 약주를 포함한 전통주 시장을 10퍼센트대로 끌어올리고, 수출액도 2008년 2억3천만 달러에서 2017년에는 10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10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에서 쌀막걸리로 건배하고 있다.



동아DB


이제는 쌀 전성시대!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고민을 해결해주는 문지방도사
고민해결 방방~
오늘의 고민은~
흑흑
흑흑, 국민들이 절 예전처럼 찾아주질 않아요.
쌀군
저런~ 밥심이라는 말도 있잖아~ 우리 몸에는 쌀이 최고인데 왜 그럴까?
착~
흑, 그야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맛도 많이 서구화되어 밀가루에 익숙해지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 가격은 비싸고 기술이 미흡해서 그렇죠 뭐.
쯧쯧, 쌀 군은 뉴스도 안 보나?
네?
그래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이 나왔잖아~
그게 뭐죠?
먼저 가공용 쌀의 공급가격을 30% 인하한다네.
30%
오오~ 그렇다면 밀가루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생기겠군요.
불끈
그럼~ 고추장 같은 장류와 막걸리 같은 쌀제품을 그동안
밀가루에 빼앗겼지만 이제는 아니지.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Tel 02-500-2175

지구를 살리는 구원투수 '그린 농업'이 등판한다

녹색산업화 등 9대 과제·50대 프로젝트 추진



일러스트·채홍석

21세기의 키워드는 녹색성장을 의미하는 '그린(Green)'이다. 특히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보다 녹색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농촌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농업 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살폈다.

누구나 한 번쯤 시골길을 지날 때 고약한 냄새 때문에 코를 움켜쥐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냄새의 원인은 농장에서 기르는 소나 돼지 등의 분뇨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연간 4천2백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 중 84퍼센트는 퇴비나 물거름으로 재사용되지만 나머지는 정화 처리되거나 바다에 버려진다. 이 때문에 해양오염 문제가 심각해져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남은 가축분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12월 공모한 '생생(生生)경제, 국민 아이디어'에서 곽현식 씨가 해결책을 내놨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설치 보급하자는 것이다. 곽 씨가 내놓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구상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고 가축분뇨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 농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아이디어로 상을 받았다.

이렇듯 농촌에서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하려는 그린 열풍이 불고 있다. 농업이 다른 산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데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등이 가능한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제1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 부문 녹색성장 추진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농업생태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며 "구체적인 비전 설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기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 부문 연구개발 과제' 발표를 통해 농업 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4대 전략과제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농업에 이용하는 것이다. 고유가

시대로 인한 농가의 주된 고민 중 하나가 기름 값이다. 게다가 석유 등 화석연료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따라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면서 환경오염도 막는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유휴부지와 소수력 발전이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장성, 경남 하동 등 14개 지구에 소수력 발전소를 운영 추진 중이며 전남 영암, 강원 횡성 등 6개 지구에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바이오매스 산업으로 각광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겨울철 시설원예 농가의 유류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지열을 이용하는 지열난방 보급 사업을 올해 9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이용해 잎들깨, 국화, 딸기 등 시설재배 작목 성장을 촉진하고 전기료를 절약하는 LED 광처리 장치 기술이 개발돼 실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중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료작목 개발과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축산 농가는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 급여 비율이 높아 사료 값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청보리, 사일리지용 옥수수 등 질 좋은 국산 사료작물 품종을 육성해 확대 보급하고 있다.

실례로 전북 김제에서 청보리를 먹인 한우가 1등급 출현율이 50퍼센트에서 88퍼센트로 향상되고 소득이 30퍼센트 정도 증가하는 등 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사과 부산물을 이용한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기술을 전북 장수한우사업단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물 사료화를 담당하는 홍성구 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 팀장은 "사과 부산물 사료를 이용하면서 사료비 절감은 물론 축산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며 "버려지는 농산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 아이디어로 제안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도 친환경 농업기술인 바이오매스 산업의 일환으로 첫 시동을 걸었다. 지난 9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에 실행될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화석에너지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이종기 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으로 '고부가 종자 및 신소재 산업화 기술의 개발 보급'과 '소비자 안전 농식품 개발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과제'도 내놓았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6일 녹색위원회가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른 추진 전략과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 10월 중순경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상정된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은 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관리,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9대 추진과제, 50대 실천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을 선도하는 농림어업,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될 예정이다.

전익성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담당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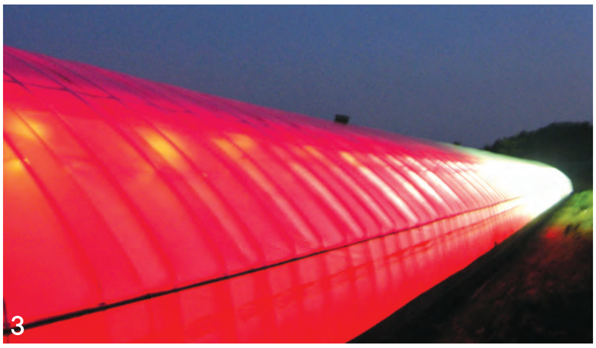
글 · 김민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1 전남 영암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농촌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농촌진흥청

2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이용하면 시설원예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

3 LED 광처리 장치 기술은 시설재배 작목의 성장을 돕고 전기료를 절약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농촌의 119’ 녹색기술 현장지원단

병충해, 성장불량… 해결사가 나가신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농업과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녹색기술 현장지원단’이 생겨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끝 부분이 꺼멓게 타들어가는 들깻잎들을 보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우리 농민들 가슴도 먹먹해질 따름입니다.”

지난 3월 말 녹색기술 현장지원단으로 ‘농민들 희망인 들깻잎을 살려달라’는 SOS 민원 한 통이 들어왔다. 경남 김해, 밀양, 부산 등 잎들깨 시설재배농가 15곳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지난해 겨울부터 나타난 이 현상은 잎들깨 재배 경력 10여 년이 넘는 베테랑 농민들이 손을 써도 그 피해만 더해질 뿐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농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모인 ‘녹색기술 현장지원단’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잎들깨를 죽이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토양의 배수 불량과 과도한 습기에 의한 성장력 약화였다. 이 때문에 각종 병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져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

녹색기술 현장지원단은 곧바로 잎들깨를 살리기 위한 처방전을 내렸다. 먼저 잎들깨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적정량의 물주기, 적정 습도 맞추기, 야간 온도 10도 이상으로 유지하기 등의 지침을 전달했다. 또한 시설이 너무 습하면 민달팽이가 잎들깨에 병을 옮기므로 토양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다음 해에 잎들깨를 심을 때는 볏짚을 사용해 토양 환경을 개선할 것도 알려줬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3월 16일 발족시킨 녹색기술 현장지원단은 현재 1백30건의 농촌 현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처리해 ‘농업종합병원 119’로 불린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 한경면에서 발생한 씨 생강 발아불량 원인이 종묘에 있음을 밝혀내 농가 보상을 받아냈고, 충남 서산시 시설재배 복숭아나무가 몇 년 동안 원인 모르게 말라죽는 원인을 밝혀내 올해 복숭아 풍년을 이끌기도 했다.

‘농업종합병원 119’ 3월 발족 후 130여 건 처리해

이 밖에도 전남 구례군 애호박 생육불량, 경기 여주군 방울토마토 잎 백화현상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는 농촌 현장의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맞는 기술지원을 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은 1차적으로 시군 농촌기술지원센터에서 접수해 처리한다. 시군센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녹색기술 현장지원단으로 넘어온다.

녹색기술 현장지원단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분기별 현장지원 사례집 〈바로 처리한 농업궁금증〉으로 발간 배포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체득한 농업 기술을 널리 알려 지역의 농촌지도기관과 현장 농업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동로 농촌진흥청 녹색기술 현장지원단 단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서비스 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Tel 1544-8572

농촌진흥청 제공



녹색기술 현장지원단의 발 빠른 현장진단 및 대책으로 농업인들은 농사 관련 애로사항을 덜게 됐다.

"급할 때 팔았다가 형편 풀리면 되산다"

농지은행 경영회생 지원 사업 인기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구하고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지 관리를 총괄하는 농지은행을 비롯해 농기계 임대사업, 농지연금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경택 기자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 보안면에서 특용작물과 젖소 80마리를 기르는 김모(40) 씨는 지난 2월 전기 누전으로 축사와 착유기 등을 몽땅 잃었다. 더욱이 사료가 격마저 하루가 다르게 올라 김 씨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때마침 언론을 통해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제도를 알게 된 김 씨는 곧바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지원을 신청해 농지 1만6천5백 제곱미터를 5억2천7백만원에 팔고 3억8천9백만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했다. 그러고 남은 돈은 축사 복구와 시설 및 장비 구입에 썼다. 젖소도 몇 마리 더 키울 계획인 김 씨는 젖소 사육과 인삼, 고구마 재배 등을 통해 연간 2억7천만원의 소득을 올려 하루 빨리 농지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지원 사업이 파산 직전의 농민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영회생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농민으로 하여금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갚도록 하고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판 농지를 다시 5~8년 정도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하게 하고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되살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사업으로 농가는 경매 처분에 따른 자산 감소(30~40퍼센트)를 막고, 고율의 연체이자(연 14~16퍼센트) 대신 낮은 임차료(연 1퍼센트 이내)만 지불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실익을 얻고 있다. 2006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5백70억원을 지원해 1천1백17 농가를 파산 위기에서 구한 이 사업은 농림 분야의 주요 정책 중 3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 농지 담보 역모기지 '농지연금제도' 시행

올해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의 기간도 20일 이상 줄이고, 지원 횟수도 연 4회로 확대했다. 지원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에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 · 전화 1577-7770)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내 농업재해 피해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부채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용률을 높여 농촌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리기, 수확기, 부속기계 등 밭작물용 농기계는 해당 시군 기술센터에서 1~3일 정도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 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논농사용 농기계는 지역 농협 영농관리센터에서 장기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고령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촌 노인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 보장과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농지은행 Tel **1577-7770 www.flo.or.kr**



일러스트 · 이우정

민간투자 활성화–지역자원 상품화–투명한 식품 유통

경제가 도는 농촌

우리 농업이 국가성장산업으로 도약하고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를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살고 싶은 농산어촌, 당당한 농어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정한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국민과 함께'는 농어업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가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뜻이며, '자연과 함께'는 흙·물·생명을 살리는 자연자원을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안심 농식품,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산어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을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먼저 농어업 육성을 지원하는 금융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안심 농식품의 공급–유통–소비 전 과정을 관리하는 국가식품시스템이 강화된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고 농어촌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복지도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소재나 기능성 물질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 농촌의 문화자원과 물적 자원을 엮은 통합형 지역 개발, 자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10대 프로젝트에는 이 밖에도 농어업·농어업인의 조직화 및 규모화, 연구개발(R&D) 관리체계 효율화, 농협법 개정 및 사업구조 개편, 보조금체계 개편 등이 선정됐다. 2012년까지 수출 1백억 달러 달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신규투자 활성화도 리스트에 올랐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조경영 3MC'를 제시한 바 있다. 3MC란 생각을 바꾸고(Mind Change), 방법과 시스템을 변화시켜(Method Change),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다(Market Creation)는 의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연말까지 '농어업 비전 2020'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직불제 개편… 주업농가 소득감소분 보전도

현행 직불제(직접지불제·정부가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는 쌀변동 직불, 자유무역협정(FTA)피해 직불, 경영이양 직불, 폐업지원 직불, 쌀고정 직불, 친환경농업 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 경관보전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9가지 유형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공익형 직불, 경영안정형 직불(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2가지 유형으로 통합 개편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공익형 직불은 현행 쌀(논)고정 직불을 전체 농지로 확대해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보전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토대로 농가별 경영 위험을 관리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는 경영 리스크가 큰 주업농가(주된 소득원이 농업인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준다.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이 80킬로그램 당 15만원 내외일 경우 쌀 직불금 지급 후 농가수취가격은 80킬로그램 당 16만7천70원으로 목표가격 대비 98.2퍼센트 수준이 될 전망이다.

●●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연령 조정·지급 기간 확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 농가에 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는 신청 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다. 또 경영이양 직불제 참가 농가도 복지지원 등 농업인 관련 각종 특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0.3헥타르 이하의 농업경영은 허용하고 있다.

직불금과 농업용 재산 등이 공제 대상 소득평가액에 확대 적용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 농어촌 특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공제 대상 직불금이 현행 2개에서 친환경 직불금, 경영이양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쌀소득고정 직불금 등 4개로 늘어난다. 또 농어촌의 재산 기초공제액도 도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재산특례가 확대된다.

●● 농촌체험 관광자원화… 도농교류도 활발히

농촌의 유·무형 자원이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돼 일자리와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체험과 휴양서비스업을 확산하기 위해 특산물, 문화유산, 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관광자원화하고 체험지도사도 육성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도시자본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농교류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문화운동으로 정착했다. 또한 전통주 등 농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 올해는 농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모델도 발굴해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 농촌마을 권역별 개발에 총 2457억 지원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농촌 마을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을 종합적으로 시행한다. 2017년까지 1천 개 권역을 선정해 40만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 목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까지



조영철 기자

경기 이천 부래미 권역 등 1백76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모하고 있다.

경기 이천 부래미 권역 등 총 1백76권역에 2천4백57억원을 지원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개 법정리 이상 소규모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당 3~5년간 40억~70억원(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을 지원한다.

올해는 새로 선정한 78개 마을 중 38개 마을의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마을에서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성공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농업 기술과 정보를 보급하고 있다.

영농현장의 법률·세무문제를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농업인교류센터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 자문단에게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독거노인·고령농 집단 거주 주택 조성

정부는 취약농가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먼저 고령 농업인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개량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세 고령농이 노후주택을 개량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도 보조해주고 있다.

독거노인, 고령농이 모여살 수 있는 집단 거주 주택도 조성한다. 집단 거주 주택은 난방비 등 생활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처리를 강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농협 등을 활용해 다목적 셔틀버스 운행,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노인 목욕 및 가사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다양해진다.

●● 농촌 보육료 지원율 5% 상향 조정

농업인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농촌 학생의 대학입학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농촌 보육료 지원율을 5퍼센트가량 상향 조정(시설 이용 시 75퍼센트, 미이용 시 40퍼센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도권 대학의 농촌 학생 특별전형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농촌지역 고교생과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계속 추진 중이다. 농촌지역 고교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비율 인하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먼저 농업인이 읍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비의 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높이고 고소득 농업인의 지원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의 50퍼센트가 지원되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농부증(다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부에게 나타나는 증후군) 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농부증 범위를 설정하고 영농 관련성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 영농현장 법률·세무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영농현장의 법률·세무문제를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지역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교류센터는 홈페이지, 현장 민원접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농협의 도지역본부에 농기업을 대상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센터도 설치한다. 농기업 종합서비스센터는 세무사와 공인노무사를 고용해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상담도 수행한다.

●● 토양 따라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친환경 수로정비, 다목적 농촌용수 공급 등을 통해 영농 편의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의 수로정비에서

조영철 기자



동아DB



오래된 저수지는 기반시설을 조성해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왼쪽).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로 재배된 흑토마토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정경택 기자

고구마 캐기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도농교류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벗어나 수초생성 수로, 저류지, 생물서식 공간 등이 조성된다. 또한 기존의 농업용수는 농촌지역에 필요한 다목적 용수로 공급 범위가 확대된다. 다목적 용수는 축산, 원예, 과수 등 다양한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사계절 용수로 쓰인다. 저수지와 양수장도 자전거도로, 카페, 휴게소 등을 조성해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내년부터는 토양검정을 통해 설계된 맞춤형 화학비료가 논밭 구분 없이 지원된다. 토양검정은 토양의 건강상태를 검사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비료나 퇴비로 토양에 공급하도록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맞춤형 비료 지원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 종합보험으로 확대

정부의 보조금체계 개편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공공성이 크고 다수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업이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사업효과가 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대신 융자로 지원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여러 가지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으로 확대된다.

국제규범과 배치되는 보조금체계도 바뀐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허용 대상과 감축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모성·낭비성 보조는 지양하고, 대규모 기업농에 대한 개별시설 보조는 축소하거나 중단된다.

●● 창업부터 정착까지 최대 3억 종합지원

후계농 육성은 창업부터 정착까지 종합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후계농어업인 육성사업과 우수농어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을 창업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통합해 자금은 물론 교육, 컨설팅,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규모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한국농수산대학은 학생 유치, 교과과정, 교원관리 등을 전면 개편해 정예인력 양성기관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농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현장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외 우수 교수 초빙 등 아웃소싱 확대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척지 우선 임대 및 컨설팅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

●●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사모펀드 등을 활용한 '농식품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조성된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1천억원가량을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농어업경영체는 사업계획서 평가만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이 확대된다. 각종 농어업 금융을 통합 관리하는 농어업 금융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 기구가 설치되면 농업경영체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 분야 지원이 가능해진다. G

글·김지영 기자

연 매출 1억원은 기본… 프로 농사꾼 3인방에게 듣는다

"생각하라, 연구하라, 창조하라"

부자의 꿈은 도시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농촌에서도 특용작물이나 가축을 기르고, 영농 기술과 소비자 연구에 몰두해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버섯 재배, 한우 사육, 감 농사로 부농을 일군 세 사람을 만나 성공 비결을 들었다.



●● 경기 이천시 샘골버섯농산 김민호

시장 변화 따라 작물 교체가 주효했어요

김민호 씨는 버섯재배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만들고 버섯농장을 체험공간으로 개방해 경쟁력을 키웠다. 백석환 씨는 완전배합사료를 만들어 먹이고 송아지 폐사율을 줄여 수익률을 높였다. 오영춘 씨는 끊임없이 농사기술과 소비자를 연구하는 프로의식으로 단감 명품화에 성공했다.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에서 샘골버섯농산을 운영하며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김민호(63) 씨는 올해로 17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한 그는 20여 년간 교단에서 생물과 농업을 가르치다 1993년 교직을 그만뒀다.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 버섯농사를 짓기 시작한 김 씨는 10여 년 만에 연간 매출이 7억~8억원에 이르는 억대 부농의 꿈을 이뤘다.

넓은 땅이 없어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규모는 작아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버섯을 택한 것이 주효했다. 김 씨의 경영전략은 시장 변화와 자신의 여건에 맞춰 과감하게 변신함으로써 스스로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실제 김 씨는 현재까지 3차례 작목 교체를 시도했다.

그가 처음 재배한 버섯은 톱밥 표고. 연구기관에서조차 재배법이 까다로워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지만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농가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배에 성공했다. 시장은 물론 버섯업계의 반향은 컸다. 하지만 톱밥 표고는 재배가 까다로운 데다 재배 기간이 3개월이나 걸리는 등 경제성도 떨어져 1997년 팽이버섯으로 전환했다.

이어 김 씨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2006년 말 새송이버섯으로 다시 작목을 바꿨다. 새송이버섯은 팽이버섯에 비해 일손이 많이 필요해 대규모 재배보다 중소규모 재배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김 씨는 현재 2천3백 제곱미터 규모의 최첨단 버섯재배 시설을 갖추고 하루 1천 킬로그램 정도의 새송이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샘골 허니머쉬'라는 상표로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이 버섯들은 다른 새송이버섯보다 품질이 우수해 월등히 높은 값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버섯농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팜스테이마을로 유명한 인근 부래미 마을과 연계해 버섯농장을 체험농장으로 개방하고 버섯과 문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김 씨는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이웃 농가들과 함께 실천해 내 고향을 활기찬 마을로 가꾸고 싶다"고 말했다.





●● 대전광역시 한우농가 백석환

완전배합사료로 사료비 줄이고 1등급 한우 늘렸죠

한우를 키우는 백석환(50·대전시 유성구 신동) 씨는 연간 약 1억4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다. 그중 순이익이 무려 1억2천만원에 달하니 수익률이 85퍼센트를 넘는 셈이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백 씨는 주저 없이 사료비 절감을 꼽았다.

백 씨는 소 사육에 배합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쌀겨, 깻묵, 맥주박, 들풀 등 각종 부산물과 비타민, 소금, 발효제 등 첨가제를 이용해 완전배합사료(TMR)를 만들어 소의 성장단계에 맞춰 먹인다. 8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면서도 매년 사료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1천8백여 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배합사료를 먹였다면 5천만원은 족히 든다.

백 씨는 "각종 부산물을 활용한 TMR 제조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그걸 만들어 먹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며 "주변의 식품공장, 유휴지 등을 찾아보면 확보할 수 있는 부산물이 널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천 1백90여 헥타르에서 매년 20~30톤의 풀을 수거해 TMR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가 키우는 한우 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높은 것도 고수익을 올리는 비결 중 하나다. 2005~2006년 45마리를 출하해 이 중 암소와 거세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이 84퍼센트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치였던 46.2퍼센트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높다. 2006년 한우 1킬로그램당 평균 경락가격이 1등급의 경우 1만6천9백69원이었는 데 비해 3등급은 9천2백92원이었다. 1등급 출현율이 높은 데 따른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송아지 폐사율을 줄인 것도 큰 힘이 됐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TMR의 배합비를 완성한 이후에는 송아지 폐사율이 1퍼센트로 줄었다. 백 씨의 농가에서 지난 3년간 태어난 1백2마리의 송아지 가운데 폐사한 송아지는 단 한 마리뿐이다.

백 씨는 "일반 농가의 경우 송아지 폐사율이 15~20퍼센트에 달하고, 송아지 한 마리의 폐사 여부에 따라 1백50만~2백만원의 손익이 달려 있어 낮은 폐사율이야말로 높은 수익률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 전남 담양군 서당골 훈장단감 오영춘

친환경농업 10년… 신지식농업인장 받았어요

"타성에 젖어 그저 농사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농사 기술과 소비자를 연구하는 프로 농사꾼이 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 농사로 연간 약 2억5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오영춘(55·전남 담양군 고서면) 씨는 억대 부농 비결로 먼저 프로의식을 꼽았다. 11헥타르의 농지에서 올해 친환경 유기재배 인증을 받은 그의 단감은 당도가 평균 17브릭스(Brix)에 달해 일반 단감보다 3배가량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당골 훈장단감'이라는 브랜드로 명품화한 오 씨의 농사 기술은 일반인들과 차이가 있다. 우선 그는 나뭇가지가 위로 솟으면 열매가 적게 달리므로 아래쪽으로 유인하면서 가지 사이사이로 햇볕이 고루 잘 들도록 가지를 친다. 이렇게 하면 농작업도 편리하고 병해충 발생도 적다. 또 콩과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를 심어 거름으로 활용하고 완숙퇴비를 듬뿍 넣어 땅심을 높인다.

해충의 경우 은행과 아카시아꽃 발효액을 뿌려서 막고, 나방 피해는 때죽나무를 첨가한 발효액을 살포하면서 유인포획기를 설치해 해결하고 있다. 당도를 높이기 위한 비법도 있다. 수확기 이전에 커피 발효액을 물에 희석해 뿌리거나 아카시아꽃 발효액을 나무에 방울 물주기 방식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오 씨는 수확한 감을 품질별로 6단계로 선별해 상당량을 학교급식에 납품한다. 어릴 때부터 안전하고 맛 좋은 과일을 먹어야 어른이 돼서도 우리 농산물을 찾는다는 게 그의 지론. 그는 또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여 소득을 높이고 있는데, 고정 직거래 고객만 1천2백여 명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신지식농업인장(章)을 수상한 오 씨는 "농사의 '농'자도 몰랐던 사람이 친환경농업에 빠져 10년 동안 노력한 끝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명품 단감을 생산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G

글과 사진 · 김장경(농민신문 기자)

충남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에 사는 최영수(58), 박영예(55) 씨 부부는 귀농 7년차 농사꾼이다. 서울에 살던 부부는 최 씨가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이후 서천에 정착했다.

부부는 이곳에서 구절초, 가시오가피 등 산야초를 키우고 아내의 솜씨를 살려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 만들어 친지와 지인들에게 판매한다. 부부는 귀농 2, 3년 전부터 미리 차 재배를 배웠고, 주말이면 서천에 내려와 차근차근 귀농 준비를 한 결과 큰 어려움 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었다.

젊은 귀농자들도 있다. 강원 속초에서 게임개발 사업을 하던 김재훈(30) 씨는 2년 전 아내와 함께 아버지 고향인 경기 양평군 개군면 상대포리로 삶의 터전을 옮겨, 한우를 사육하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한우 9마리를 기르고 있지만 그의 꿈은 좀 더 큰 한우목장에 있다. 두 달 전 아내가 아이를 낳아 아빠가 된 김 씨네 세 식구의 미래가 담긴 목장이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에서 3년째 '고유나플라워'라는 화훼업체를 운영하는 총각 3인방도 있다. 서울 태생으로 직업군인 출신인 고형록(33) 씨와 역시 서울이 고향인 주방장 경력의 유준영(33) 씨, 그곳이 고향인 나석운(31) 씨 등 세 명이 그들이다. 사업체 이름도 이들의 성(姓)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들었다.

지자체 토지 · 정착금 지원으로 귀농 희망자 유치도

학연이나 지연으로 엮이지 않은 이들이 함께 농촌에서 청춘을 불사르게 된 것은 2001년 군에서 전역하고 잠시 경기 용인의 화훼업체에서 일하던 고 씨가 이곳에 혼자 내려온 다음이다. 땅을 임대해 비닐하우스를 짓고 관엽식물류를 기르던 고 씨가 곧

농촌이 젊어진다

귀농인 절반이 40, 50대… 침체된 농촌에 활기

귀농(歸農). 말 그대로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콘크리트 빛 도시를 뒤로하고
땅 냄새 물씬한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
도시인 누구나 한 번쯤 꿈꾸지만
실제 귀농자들은 꿈과 다른
현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많은 이들이
귀농 행렬에 가담하며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차를 재배하고 장류를 만들며
충남 서천에 정착한
최영수 · 박영예 씨 부부.

유 씨, 나 씨를 알게 되면서 의기투합해 동업에 뜻을 모았다. 나 씨 등은 현재 약 7백 제곱미터의 땅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관엽식물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1월부터는 가로수용 종려나무 2만 그루를 네덜란드에 첫 수출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

이처럼 갖가지 사연과 꿈을 안고 농촌을 찾아드는 귀농.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귀농인구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직후에도 한때 귀농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7년 이전 한 해 평균 1천 가구 미만이던 귀농인구는 1998년 6천4백9가구로 급증했다. 이후 급감한 귀농가구 수는 2002년 7백69가구로 바닥을 찍었고, 2000년 이후 매년 1천~2천 가구 선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2천2백18가구로 뚜렷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 교육기관 등에서 귀농교육 먼저 받아야"

지난해 귀농가구는 시도별로 경북(4백85가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3백85가구 △경남 3백73가구 △전남 2백89가구 △충남 2백27가구 순이었다. 즉 귀농자 10명 중 7명 정도가 농어업이 주요 산업인 전남 · 북과 경남 · 북에 둥지를 틀어 지금의 귀농 행렬이 단순한 전원생활 즐기기가 아니라 진짜 농산업에 뜻을 둔 귀농임을 짐작하게 한다.

귀농 희망자들이 성공적으로 귀농에 정착하는 비율은 3명 중 1명. 충분한 준비 없이 귀농하면 1백 퍼센트 실패한다는 것이 귀농 경험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귀농을 결심했다면 귀농교육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구주의 연령은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40, 50대가 절반 이상(60퍼센트)을 차지했다. 귀농이 농촌의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귀농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귀농 · 귀촌 교육을 실시하는 각 교육기관이나 설명회장에는 참가자가 넘쳐난다.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경북 상주시 주최 귀농 · 귀촌 유치설명회에는 5백여 명이 참석해 호황을 이뤘다. '여러분은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주지역 '농사의 달인' 10여 명이 참석해 귀농 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정착금 지원을 앞세워 도시의 귀농 희망자를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는 귀농 희망자들에게 지역 내 '농사의 달인', 생산 · 유통 · 가공 전문가들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맺어주는 '멘터 제공' 등 지속적인 농촌 정착 컨설팅을 내세웠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주태 과장은 "주로 30~60대의 연령에 회사원,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농촌 정착 컨설팅을 원했다"며 "당초 계획은 90명 정도 귀농 희망자를 선발해 멘터 주선 등을 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



자신들의 성을 한 글자씩 따서 이름 지은 '고유나플라워'라는 화훼업체를 운영하는 귀농 총각 삼총사. 모자 쓴 이가 고형록 씨, 고 씨 오른쪽이 유준영, 왼쪽이 나석운 씨다.

결국 1백70명을 선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시작된 한국농업대의 '경기 귀농 · 귀촌 학교' 과정에는 50명 정원에 2백59명이 응시해 5.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귀농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기도 한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민에게 새 일자리를 찾아주는 방법의 하나로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 희망자들이 성공적으로 귀농에 정착하는 비율은 3명 중 1명에 못 미친다는 현실도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충분한 준비 없이 귀농하면 1백 퍼센트 실패한다는 것이 귀농 경험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귀농을 결심했다면 농촌진흥청이나 농협, 또는 한국농업대, 천안연암대, 전국귀농운동본부 등을 통해 귀농교육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정용수 상임대표는 "이 시대의 귀농이란 직업의 전환이나 거주지의 이전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며,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자기혁신"이라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며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일구는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준비부터 정착까지 종합 시스템 가동

“귀농 상담 참~ 쉽죠”

정부의 지원책을 꼼꼼히 챙겨 귀농·귀촌을 준비한다면 훨씬 일이 수월해지고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관할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귀농·귀촌 종합 시스템’을 통하면귀농·귀촌의 A부터 Z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농업인재개발원이 함께 발행한 귀농·귀촌 안내 브로셔.



조영철 기자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가 개설한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상담하는 모습. 전국에 16개 센터가 개설돼 있다.

전북 고창군의 한 시골집. 쌀밥, 고구마줄거리 나물, 우럭구이, 추어탕 등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점심 밥상을 배부르게 즐긴 일곱 남자(이윤석, 김성민, 김태원, 이경규, 이정진, 윤형빈, 김국진)에게 엉뚱한 특명이 떨어진다. ‘점심 메뉴와 똑같은 저녁 밥상을 차려라!’

이들은 ‘몸뻬 바지’를 입고 논과 산, 바다로 나간다. 쌀밥을 짓기 위해 벼를 베러 논에 가서 난생 처음 낫질을 하고 절구질을 해 쌀알을 얻는다. 밭에서 고구마를 캐는 일은 약과다. 우럭구이를 만들기 위해 배를 타고 낚시를 갔다가 허탕을 치고, 다른 멤버는 젖소 우유를 짜러 간다. 한 끼 밥상을 차리기 위해 7명이 6, 7시간 땀을 흘린 것이다. 10월 11일 KBS 2TV에서 방송한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에 등장한 농촌 체험 장면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보듯이 농촌 경험이 거의 없는 도시인에게 귀농·귀촌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별 준비 없이 도전했다가 쓴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귀농·귀촌 서비스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훨씬 일이 수월해지고 안착 확률이 높아진다.

지난 5월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귀농·귀촌 종합 시스템’은 귀농·귀촌의 A부터 Z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귀농 희망자라면 △농협중앙회의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진흥청 등의 통합 농업교육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통해 착실하게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다.

충남 청양군에서 지난 2월부터 대추토마토 농사를 시작한 윤동규(43) 씨는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을 받은 귀농 새내기다. 보험회사 영업직을 하던 윤 씨는 국비 지원 귀농교육을 받고 농업 창업자금을 받아 농사를 시작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홍식(39) 씨는 향후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천안연암대학의 ‘귀농 성공 길잡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처럼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들이 적지 않다(신청 내용은 표 참조).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일부 보조,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 귀농·귀촌 희망자 6개월간 농업인턴 체험

귀농·귀촌 희망자가 선도 농가에서 월급을 받으며 6개월 이내의 현장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 자격은 귀농교육 사업 신청일 기준 18~55세 이하, 농고·농대 출신, 제대 후 구직자 등 미취업자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다. 선도 농가는 신지식농업

인, 창업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등 시장, 군수가 인정한 우수 농가다. 인턴에게는 월 1백20만원씩 6개월 동안 급여를 준다.

●● 농업 전문가 상담·선배 귀농인의 영농기술 조언

농업 전문가가 창업, 농사 기술 등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귀농한 선배가 조언을 해준다. 창업 및 영농전략 수립 방법 컨설팅은 물론, 농촌생활과 문화에 대한 조언, 영농기술 조언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전 가구원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 주택·농지 구입 전 현지 적응 돕는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지와 주택을 사기 전까지 일정 기간 살면서 현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전국 1백 곳에 귀농인의 집이 마련돼 있다. 임대료는 무료이며 전기세, 수도세 등은 본인 부담이다. 귀농인의 집에 입주하려면 귀농교육을 받은 경우나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가 우선이다.

●● 농가주택 수리·구입 시 가구당 5백만원까지 지원

농촌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구당 5백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전 가구원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했거나 이주하기 전이라도 농가주택을 매입했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또 위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3주 이상 또는 1백 시간 이상 귀농교육을 받은 경우 가구당 4천만원까지 농가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 이율은 연 3퍼센트다. 한편 농업 창업자금 명목으로 가구당 1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며, 상환 조건은 농가주택 구입자금의 경우와 같다.

●● 귀농·귀촌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서울, 경기, 전북, 충북 등지에 있는 강의장에서 실습 위주의 귀농교육을 한다. 교육기관은 농협중앙회, 대산농촌문화재단, 농업인력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 사회적 기업인 (주)이장 등 16개 기관이며 교육 내용은 귀농·귀촌 종합교육, 과수, 축산, 농촌 디자인, 여성 농업인 최고경영자(CEO) 되기 등이다. 교육 시간은 1백 시간이며, 교육비 중에서 본인 부담은 40만원이다.

온라인에서도 귀농교육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귀농·귀촌 교육기관인 농업인재개발원의 통합 농업교육 사이트 외에도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농촌진흥청 사이버농업인대학에서 귀농·귀촌 성공 길잡이 교육과 함께 귀농 성공사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G

글 · 최은숙 기자

귀농 · 귀촌 정착지원사업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신청 기관
귀농·귀촌 교육	실습 중심 교육 (1백 시간)	*도시 거주 귀농 · 귀촌 희망자 *2004년 1월 1일 이후 귀농자	7백50명/1인당 2백만원 (본인 부담 40만원)	귀농 · 귀촌 교육기관 (agriedu.net 참조)
	현장체험 교육 (1박2일)		3천명/1인당 15만원 (본인 부담 3만원)	
귀농인 농업 인턴지원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 출신, 제대 군인(18~55세 이하)	7백50명	시군
귀농 · 귀촌 컨설팅/멘터링		*2004년 1월 1일 이후 전 가구원이 농촌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7백35명/1인당 1백50만원 (본인 부담 30만원)	농업인재개발원 (agriedu.net 참조)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 희망지에 임시 거주를 원하는 자	1백 가구 *6개월 이내 무료 임대 *전기비 등 실비 본인 부담	시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004년 1월 1일 이후 전 가구원이 농촌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주 전 대상자도 포함	3천 가구/가구당 5백만원 한도 (실비 지원)	시군
농가주택 구입 지원		*2004년 1월 1일 이후 전 가구원이 농촌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1천5백 가구/가구당 4천만원 한도(공시 지가 기준)	시군 및 농협
농업 창업 지원		*타 시도(시군) 1년 이상 거주, 귀농교육 이수자 (3주 또는 1백 시간 이상) 단, 기존 귀농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영농확인서 (이장 또는 농업기술 센터 소장 발급)로 대체 가능 *신용상 문제가 없는 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 *3천 가구/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귀농 · 귀촌종합센터 Tel **1577-9597 refarm.nonghyup.com**
농업인재개발원 통합 교육정보 서비스 **agriedu.net**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uriturn.com**
농촌진흥청 사이버농업인대학 **hrd.rda.go.kr**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affis.net**
한국농어촌공사 **ekr.or.kr**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

"SOC 투자·농산물 수출 지원 확대해야"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지난해 26.8퍼센트로 사상 최저치다. 여상규 의원은 "최근 국제곡물가가 폭등하고 식량무기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을 살려야 하고 농촌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농촌에서 사는 것이 삶의 질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진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나라당 여상규(61) 의원은 지역구가 경남 남해-하동이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다. 누구보다도 농어촌과 농어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지역 민심을 묻는 질문에 "썩 좋은 편은 아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농민들은 늘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쌀 직불금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딴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마다 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농민들 손에 쥐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으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정부 정책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농어촌엔 노인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은 대부분 병원을 집 드나들 듯하고, 안방에는 약봉지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농어업인들에게 1인당 60만6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지원액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요.

농촌경제가 살아나려면 먼저 농촌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도로나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SOC)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개선되면 인접지역으로의 농산물 판매도 확대돼 농가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농촌에 대한 SOC 투자를 미루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농촌은 앞으로도 계속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귀농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를 늘리고 실업 해소를 위해 귀농 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도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농자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농촌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사는 것이 삶의 질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진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귀농자들에게만 차별된 지원을 해주면 기존 농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에 하고 싶은 제언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농산물 수출지원 대책은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2012년까지 농산물 수출 목표를 1백만 달러로 잡고 있는데, 현재 상태를 봐서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수출지원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 수출지원 예산의 80퍼센트가 융자사업에 치중돼 있는데, 수출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국비보조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유성엽 무소속 의원

"체감할 수 있는 쌀값·FTA 대책 나와야"

자유무역협정(FTA)은 농민들에게 재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유성엽 의원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걸리 등 전통주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농촌 살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유통개선을 통해 생산자가 제때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도농교류를 활성화해서 농외소득을 올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유성엽(49) 의원은 전북 정읍이 지역구다. 정읍은 대표적인 곡창지대이면서 한우 등 축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유 의원은 지역 민심에 대해 "최근 쌀값 폭락으로 큰 시름에 빠져 있으며, FTA 등 개방에 따른 불안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와 실망이 앞선 듯합니다. 농업, 농촌의 역사와 특수성을 외면한 채 시장원리에 입각한 농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조치 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해명은 지금도 농민들에게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식품산업 육성도 생산농민들과는 거리가 먼 남의 일이라 혜택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쌀값 대책이죠. 쌀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우리 농업에서의 비중을 감안할 때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생산비가 대폭 상승한 상황에서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쌀 수급 문제는 매년 평균 40여만 톤 정도 되던 대북 쌀 지원이 현 정부 들어 중단된 것도 영향이 큽니다. 정부는 쌀값 대책을 잘못된 판단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쌀 매입 시기도 놓쳤고 양도 최소한 6만 톤 정도 부족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정부는 '쌀값이 지금보다도 더 떨어져야 시장경제 원리에 맞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농가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농업을 지원 육성하면서 FTA 비준 시행을 보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확실하고 충분한 피해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정직하고 진지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적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를 정확히 도입해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사업들로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칭 '수출세' 도입 등 실효성 있고 확실한 재원확보 대책도 필수적이고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언을 해주십시오.

정읍은 한우(브랜드명 단풍미인) 등 축산의 고장이자 벼농사 등 경종농업도 왕성한 곳입니다. 이런 지역은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하는 순환복합영농을 통해 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개선을 통해 생산자가 제때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도농교류를 활성화해서 농외소득을 올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당장은 직불제를 개선하고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G

글·최호열 기자

‘고구마 박사’ 이준설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고구마로 바이오 대박!”

이준설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호박고구마로 잘 알려진 ‘연황미’, 대체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대유미’ 등 고구마 신품종 25종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17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양에 맞는 고구마 품종을 개발 보급해온 국내 최고 ‘고구마 박사’다.


한현묵
‘고구마 박사’ 이준설 연구관이 자신이 개발한 ‘연황미’ ‘연자미’ ‘대유미’ ‘맛나미’ 등 각종 신품종 고구마들을 내보이고 있다.

고구마 수확이 한창이다. 빨간색부터 자주색, 주황색, 우유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의 고구마를 캐어 밭이랑에 놓는다. 언뜻 봐도 한 종류만 심은 고구마밭이 아니다. 이랑에는 전문가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와 낱말이 적힌 푯말이 여기저기 꽂혀 있다. 가을걷이로 분주한 전남 무안군 청계면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의 2헥타르가 넘는 고구마 시험포장(농작물의 시험에 사용하는 땅) 풍경이다. 밀짚모자를 깊게 눌러쓴 이준설(52) 농업연구관이 조심스럽게 고구마를 캔다.

이 연구관은 ‘고구마 박사’다. 지난 17년간 연구실과 시험포장을 오가면서 ‘해피미’ ‘바이오미’ ‘주황미’ ‘하얀미’ ‘보라미’ 등 고구마 신품종 25가지를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특히 2006년 개발한 호박고구마 ‘연황미’는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그도 덩달아 고구마 박사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고구마 작물의 품종 개량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 보급,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10월 9일 제18회 대산농촌문화상 농업기술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교보생명 창업자인 고(故) 대산(大山) 신용호 선생의 뜻으로 1991년 설립된 대산농촌문화재단(이사장 정태기)이 주는 것으로, 국내 민간 농업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이날 농업경영 부문에서는 조기심 농산무역 대표, 농촌발전부문에는 문규환 전북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대표와 곽동원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조 대표는 네덜란드와 뉴질랜드가 독점하고 있던 일본 파프리카 시장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 대표는 야생 복분자 재배법을 개발한 공로로, 곽 팀장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을 제시한 공로다.

이 연구관은 1992년 겨울부터 고구마 연구를 시작했다. 농촌진흥청 목포시험장에 근무하던 연구 초년생에게 맡겨지다시피 한 과제였다. 당시 고구마는 연구원들 사이에 비인기 육종 작물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육종 전문가들은 전망이 밝은 쌀과 보리, 옥수수, 콩, 감자 등 5대 작물과 원예, 과수 등 작물 개발에 치중하고 있었다.

“육종 전문가들은 쌀과 보리 등 식량 작물에 관심이 많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마이너 작물인 고구마는 관심 밖이었죠.”

고구마 개량 · 보급으로 대산농촌문화상 대상 수상

목포시험장에 연구 과제로 떨어진 목화, 참깨, 고구마 중에서 고구마는 연구 초년생인 그의 차지가 됐다. 처음에는 고구마 육종이 내키지 않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에 생각을 바꿨다. 되레 고구마를 농가의 효자작물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국내 고구마 육종 전문가는 한두 명에 그쳤다. 이전 연구와 성과물이 거의 없는 맨땅에서 연구를 시작해야 했다.

뛰어난 고구마 육종의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병충해에 강해야 한다. 둘째, 크기가 작고 수량이 많이 달려야 한다. 셋째로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해 외관이 잘생기고, 주황색과 자색 등 속살이 컬러풀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 맞춰 그는 실험실과 시험포장을 오가며 수없는 인공교배와 도태, 선발 과정을 되풀이했다.

머릿속에 신품종을 그리며 인공교배를 한 후 씨앗을 얻는 게 고구마 육종의 첫 단계다. 매년 2만 개의 씨앗을 심고 다음 해

에 신품종 후보군 5백~6백 개만 남기고 도태시킨다. 이 후보군은 7년 넘게 검증을 거치면서 겨우 2, 3개만 남는다.

신품종 개발의 마지막 관문은 전남과 전북 등 전국 5개 지역을 거치는 시험재배다. 이곳에서는 전국 어떤 농가가 신품종을 재배해도 균일한 수량이 보장되고, 외관의 변형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익산과 강화, 논산, 여주, 보령 등 고구마 주산지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현장에서 여러 차례 평가회를 갖는다. 지역의 우수품종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이다. 이처럼 고구마 육종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지역 토양에 적응시키는 일이다. 이 연구관은 "고구마는 토양에 아주 민감해 지역이 조금만 달라도 잘 자라지 않는다"며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도 재배가 잘되는지를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설 연구관은 고구마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인다. 예전 식용 위주의 고구마에서 음료와 와인, 식초 등 기능성 가공식품으로 전환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재배면적당 소득이 높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고 한다.

이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 신품종이 탄생한다. 하지만 어렵게 개발한 신품종도 실제 농가 재배 시 병충해에 약하거나 소비자의 반응이 냉담할 경우 살아남지 못한다. 이 연구관은 고구마 육종을 20여 가지 개발한 끝에 연황미 신품종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연황미는 호박색을 띠어 호박고구마로 통한다. 맛 좋고 모양도 매끈한 데다 수확량이 많아 뛰어난 육종의 3박자를 모두 갖췄다.

무엇보다 고구마의 고질병인 덩굴쪼김병(잎이 누레지고 땅속줄기가 검게 변해 자라지 못하는 병)에 내성이 강할 뿐 아니라 유통 단가가 높아(일반 고구마 10킬로그램당 2만7천원, 연황미는 3만2천원 선) 농가에 빠르게 보급됐다. 최근에는 해남 화산농협에서 수출도 시도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재배에 성공해 올해 초부터 보급하고 있는 고구마 신품종 '대유미'도 그의 작품이다. 일반 고구마보다 전분 함량이 월등히 많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성이 높은 데다 대량생산도 가능해 친환경 대체에너지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맨땅에서 시작해 이젠 '고구마 수출'까지 넘봐

컬러 고구마의 응용 분야도 다양하다. 그가 개발에 참여한 컬러 고구마는 자색 고구마인 신자미, 보라미, 연자미, 주황색 고구마인 신황미, 주황미, 해피미 등이 있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은 자색 고구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좋으며, 음료, 천연 색소, 와인 등 활용 분야가 넓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은 주황색 고구마는 샐러드용, 천연 색소 개발 등에 응용된다. 이 밖에도 컬러 고구마를 활용한 섬유 염색 분야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구마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인다. 예전 식용 위주의 고구마에서 음료와 와인, 식초 등 기능성 가공식품으로 전환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재배면적당 소득이 높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고 한다. 국내 고구마 재배면적은 총 2만1천 헥타르로 농가소득은 3천억원 이상이다. 고구마밭 10헥타르당 평균소득은 93만원꼴로 일반 작물보다 2, 3배 높다.

17년 전 우연히 접한 고구마. 이 연구관은 어느새 고구마 전도사가 됐다. 공휴일에도 출근하고 시험재배한 고구마를 들고 퇴근하는 그를 못마땅해하던 가족(부인과 2남)도 이제는 적극적인 후원자다. G

글 · 한현묵(전남일보 정치부 기자)



대산농촌문화재단 제공

국내 민간 농업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대산농촌문화상'의 2009년 수상자들. 왼쪽부터 이준설 연구관, 조기심 농산무역 대표, 문규환 전북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대표, 곽동원 진안군청 마을만들기팀장.



조영철 기자

집무실에 '법으로 사람을 위한다'는 뜻의 '以法爲人'이라는 액자를 걸어둔 이석연 법제처장.

"우리 국민은 1만3천여 개에 달하는 법령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제가 취임하면서 국민과 법제처 직원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석연(55) 법제처장은 취임 당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실질적인 성과가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 공무원,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다양한 경력을 거쳐 지난해 3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그는 취임하자마자 법령정비 전담조직인 국민불편법령개폐팀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했다.

그간 접수된 개선 의견은 2천5백여 건. 이를 검토해 2백14건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러한 내용을 4차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 법령을 정비해왔다.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은 올 상반기 시행한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 개선'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과제 평가를 받았다.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에 역점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7년 연구 자료를 보면, 불합리한 낡은 법령만 없애도 국민과 기업에게 국내총생산(GDP)의 1퍼센트(약 10조원) 가까운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이 민간 분야에 부담을 주고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뜻이죠. 법령이란 그만큼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입니다.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진행에 있어 어떤 기준을 두셨습니까.

운전면허증 미소지 범칙금 부과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인허가 절차 등 기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 투자 제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실제 법령 개선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법령, 취약계층이나 서민,

불편법령 개폐 앞장선 이석연 법제처장

"국민이 지키기 쉬운 법 만들어 지키면 득 보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여전히 변호사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석연 법제처장. 지난 3월 취임 이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고쳐 국민이 다가가기 쉬운 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를 만났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당 분야의 개선을 강화해왔습니다.

그 밖에 다른것도 소개해주시죠.

제가 법제처에 와서 중점을 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법을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한 철학을 바탕에 깔고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 은 관련 콘텐츠가 제 취임 당시 5개에서 지난 9월 1백 개가 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행정내부 규정에 대한 일몰제 전면 도입도 있습니다. 지난 5월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행정내부 규정을 일단 전면 폐지한 후 필요 시 재발령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규제도 없앴습니다.

"법은 국민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인터넷(oneclick.moleg.go.kr)을 통해 국민 스스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복잡한 법령을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제공해 법령 명칭을 알지 못해도 '음식점 창업'이라는 키워드만으로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음식점 창업과 관련한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모든 법령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려운 관계 법령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정부가 무료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개선될 법률 분야는 어떤 것들입니까.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기존 법령의 개폐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만 현재 없는 법의 제정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발표한 과태료, 과징금 합리



이석연 법제처장이 지난해 법제처 홍보대사로 선정된 탤런트 김상경 씨와 환담하고 있다.

화 방안에 이어 올해 안에 인허가제도를 전면 검토할 것입니다.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인허가 요건, 절차, 서류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법이 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법과 국민은 어떠한 관계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법으로 사람을 위한다'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제 신조입니다. 법은 국민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법은 소외된 국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 사회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득이 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법을 존중할 때에만 그 가치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지키기 쉬운 법을 만들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득을 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킬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하는 일이 있는지요.

우선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을 상시 고쳐나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또 국민이 생활법령정보를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헌법정신에 충실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그에 기여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의 헌법정신이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정신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법치의식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입법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법제교육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위해 '법제교육원' 같은 하드웨어를 마련하는 일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우리 아이 지키는 안전 키워드 '그린i-Net'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15종 보급

지난해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는 장소로 청소년의 95.8퍼센트가 집을 꼽았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 음란물 접촉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캠페인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홍보 책자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



정경택 기자

초등학교 3학년 승현(10) 군이 엄마와 함께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그린i-Net에서 설치하는 모습.

> 청주 상당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조모(18) 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범행을 모의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
> *2008년 9월 17일자 〈연합뉴스〉*
>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포르노물을 보고 이를 흉내 내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학교 안, 놀이터, 부모가 없는 집에서 이런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
> *2008년 4월 30일자 〈한겨레〉*

지난해 발생한 청소년 범죄 사례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가 혼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음란물과 폭력 등 불법 유해정보에 노출될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말 서울·경기지역 만 13~18세 청소년 3백38명을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4명꼴인 35.7퍼센트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했다. 음란물을 접한 장소로는 집이 95.8퍼센트로, 학교(2퍼센트), PC방(1퍼센트)에 비해 압도적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같은 해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국 1만4천7백16명의 중고교생 중 최근 1년간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는 학생이 35.9퍼센트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치를 보더라도 "내 아이만은 안 그러겠지" 하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대처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말 두 기관은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그 성과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도해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그린i-캠페인'이고, 학부모와 학생이면 누구나 '그린i-Net (greeninet.

그린i-캠페인은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벌이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인터넷 유해정보의 심각성과 함께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or.kr)'을 통해 15가지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중에서 원하는 것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그린i-캠페인은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벌이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인터넷 유해정보의 심각성과 함께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캠페인 첫 달인 4월에 그린i-Net을 통해 5만9천5백81건의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된 것을 시작으로, 10월 20일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백5만2백94건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들의 다운로드 건수가 68퍼센트, 중학생 23퍼센트, 고등학생 6퍼센트, 기타 3퍼센트로 나타나 당초 기대한 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참여율이 높다.

무료 다운로드로 사용시간 제한에서 유해 사이트 등 차단

그린i-캠페인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목표치는 50만 가구. 당초 3년 예정으로 출범한 그린i 사업은 이용자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순회 캠페인 △오프라인 교육 장소 마련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콜센터 서비스 보강 등 지속적인 홍보와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는 고문단으로 강지원 변호사, 탤런트 김미숙 씨,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영화배우이자 선플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안성기 씨, 최영희 의원(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김승주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본부장, 남택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학계, 민간기업 관계자 15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G

글 · 최은숙 기자

그린i-Net **greeninet.or.kr**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A to Z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으려면 그린i-Net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여기에는 맘아이, 컴사용 지킴이 등 14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른 후 이용자 정보(학부모 성명, 자녀 학교, e메일 등)를 입력하면 다운로드가 바로 시작된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유해 사이트 차단 기능, 사용시간 제한 설정 기능, 필터링 등급 선택 기능, 유해 동영상 차단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구축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에 힘쓸 것"



정경택 기자

지난 8월 제2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진강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 독립 기구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 설립 목적이다. 지난 8월 7일 제2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진강(66) 위원장에게서 건전한 인터넷문화와 방송문화 정착을 위한 포부를 들었다.

그린i-캠페인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국내에서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역기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에 대한 대책들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린i-캠페인은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구축을 통해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일하는 등 법조계에 오래 몸담은 경력을 위원회 운영에서 어떻게 발휘하고 계십니까.

한 예로 심의 의결 내용을 판결문 수준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대내적으로 의결문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 향후 심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대외적으로는 피규제 대상인 방송사업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 등이 내려질 경우 어떠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됐는지를 명확히 알려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위원회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의 '막말 방송'에 대해 무기한 중점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막장 드라마, 막말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위주의 제재조치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시청자들이 스스로 좋은 방송이라고 평가할 때까지 중점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 건전한 방송문화 환경 조성을 도우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다양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 법률구조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로펌이 되겠습니다"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올해로 창설 22년을 맞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1월 5일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를 알리고 그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2009 법률구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법(法)은 사회를 균형 있게 만드는 중심축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우리 정부는 1987년 법률복지 서비스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말 그대로 '법으로써 국민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크게 법률 상담과 민사·가사사건의 소송 대리, 형사사건 소송 변호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 법원, 검찰청이 있는 지역에 18개 지부, 39개 출장소, 15개 지소를 두고 있다.

법률 상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 대리나 형사사건 소송 변호 등 법률구조 서비스는 대상이 제한된다. 현재 월평균 수입 2백60만원 이하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상자, 장애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소년소녀가장,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을 통한 구조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소송'으로 취약지역에 공단 지소를 보강 설치해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이 없어서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을 통한 구조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해 다문화가정 밀집지, 농어촌 등 취약지

역에 공단 지소를 보강 설치해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과도한 부채로 파산에 처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초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를 만들어 법률구조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 개인 워크아웃 등을 도와주고 있다.

이같이 국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결같은 노력을 해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올해 특별한 한 해를 맞았다.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11월 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2009 법률구조 국제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법조인, 학자 등 약 2백50명이 모인 가운데 법률구조제도의 세계적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창설 이래 최초 국제행사… 법률구조 발전방향 전망 기회

세계 각국은 역사적 배경이나 운영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선진 각국의 법률구조를 비교 고찰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을 전망할 예정이다.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진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구조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애브럼 셔(Avrom Sherr) 영국 런던대 법학연구소장이 기조 강연을 맡는다. 이후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이일형 미국 미주리대 로스쿨 교수, 데라이 가즈히로 일본 사법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법률구조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행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 김현철 인권구조과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설 22년 동안 있었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단이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국민로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Tel (국번없이)**132** **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11월 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법률구조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한국, 일본 등 법률 구조 석학들이 법률구조의 세계적 동향과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감동 서비스… 가족처럼 따뜻하게 국민 보살필 것"



지난해 6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끌고 있는 정홍원(65) 이사장은 요즘 공단이 처음 여는 국제심포지엄 때문에 들떠 있다. 그가 말하는 이번 행사의 의의와 앞으로 공단이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2009 법률구조 국제 심포지엄' 개최의 의미는 무엇인가.

벌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만들어진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간 국내 법률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괄목할 만한 성장도 이뤄냈다.

법률구조의 중추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지만 국제적인 교류나 행사는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 이번 행사에서 선진국 석학들과 한자리에 모여 법률구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국내에서 대규모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 법률구조 체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선진국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우리 공단의 운영을 본떠 법률구조제도를 정비했을 정도다. 또 법률구조제도가 가장 발달해 있는 영국은 이 분야에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지만 우리나라는 5백억원 정도 예산으로도 전 국민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위한 발전 계획들이 궁금하다.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세 가지다.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단순 사건만 맡는 것이 아니라 의료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어려운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일주일에 10통 정도 사건 의뢰인에게서 고맙다는 편지가 온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법률구조 서비스로 모든 국민이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단으로 만들고 싶다.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법문화 교육이 있다. 지금까지는 법률 강연이나 법률 상담 등이 주된 활동이었지만 이런 일반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법 제도와 민주주의 등에 관한 법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문화교육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경북 김천시와 협조해 추진 중인데, 내년 후반기쯤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버려지는 나무 모아 '나무은행'… 예산절감·고용창출 '일석이조'

전남도는 3년 전부터 '녹색성장'

매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버려지는 나무는 8000만 그루에 달한다.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버려지는 나무까지 합치면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전남도는 2007년부터 '나무은행'을 운영해 자원 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전남도는 2006년 4월 도의 슬로건을 '녹색의 땅 전남'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걸맞게 친환경 농업 육성, 가로수 확대, 도심 숲과 소공원 조성 등 녹지 면적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전남을 녹색의 땅으로 만드는 과정은 수월치 않았다. 무엇보다 전남의 조경수 생산 실적이 전국의 8퍼센트밖에 안 되었기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조경수를 비싸게 구입해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버려지는 나무들'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매년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의 규모는 19만9천 헥타아르. 1헥타아르 당 4백여 그루의 간벌목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베어져 버려지는 나무는 8천만 그루에 이른다. 전남만 해도 연평균 4만 헥타아르의 숲 가꾸기 지역에서 1천6백만 그루의 나무가 버려지고 있었다. 숲 가꾸기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로 공사, 임도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버려지는 나무까지 합하면 그 양이 엄청나다.

더욱이 베어진 나무는 대부분 현장에 방치되거나 일부 농어촌에서 땔감 또는 톱밥 제조 등에 이용되고 있을 뿐이었다. 개발사업의 편리성만을 고려해 수십 년 동안 가꿔온 귀중한 수목이 헛되이 버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각종 개발사업장 폐기 나무 모아 녹화사업 진행

전남도 산림소득과는 숲 가꾸기 사업장이나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베어질 나무 중 조경 가치가 있는 나무와 개인이 기부한 나무들을 모아 두었다가 녹화사업에 활용하는 나무은행 제도를 구상해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약해 더 많은 녹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나무은행은 예산 부족으로 녹화사업이 어려웠던 전남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전남도는 2007년 7월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 전남도는 산림자원화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순천,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해남, 함평군 등 9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나무은행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같은 해 11월에는 21개 시군으로 나무은행 제도를 확대했다. 처음엔 업무가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던 시군 담당 공무원들도 이내 취지에 공감해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나무은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나무은행 담당자 워크숍을 세 차례 개최하고, 나무의 굴취 대상지 선정 요령과 굴취, 운반, 사후관리 요령 등을 담은 '나무은행 수목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도민 누구나 나무 기증과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 홈페이지도 구축했다.

지금까지 나무은행에 수집된 나무는 총 6만4천2백30그루. 시군 산림 관련 부서에서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등으로 접수를 한 뒤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개인이나 기관에서 폐기할 나무를 기증받아 수집 활용하고 있다.

도 단위 광역화… 시군 간 수목 거래 유도

나무은행에 예치된 나무들은 공공 목적의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광양 마동공원 내 도심 숲 조성, 담양 대덕 가로수 조성, 곡성 소나무 특화숲 조성, 장흥 우드랜드 가로수 조성, 강진 주작산 휴양림 및 여수엑스포 대상지 경관 조성 등이 지금까지 활용된 대표적인 예다.

일반 주민이 개인적으로 나무은행의 나무를 조경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시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전남도 이원희 산림소득과장은 "나무은행 사업은 버려지는 나무를 공공사업장 등에 활용함으로써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예산까지 절감했을 뿐 아니라, 공공근로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까지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나무은행을 운영한 결과 가로수, 도심 숲 조성 등 1백11개 사업장에서 1백39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한다. 또한 현재 나무은행에 예치된 수목 3만6천8백13그루의 기대가치가 1백77억원에 이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목의 수집과 운반, 식재, 사후관리를 위한 작업단을 운영함으로써 하루 2백86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 과장은 "나무를 옮겨 심을 포지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작업단을 구성하고, 산주 동의서를 받고 사후관리를 하는 등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커다란 성과를 얻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나무은행 포지와 수목 수집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시군별로 운영돼왔던 나무은행을 앞으로는 도 단위로 광역화해 시군 간 수목 거래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나무은행 사업은 도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문과 방송,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나무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나무은행에 관한 각종 정보를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나무은행은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하고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또한 예산을 절약하고 버려지는 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 나무은행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그래서 전남도가 좀 더 일찍 '녹색의 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전남도 나무은행 홈페이지(왼쪽).
전남도는 나무은행을 만들어 버려지는 나무들을 재활용해 환경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있다.



특허청

10월 21일 제1회 IP5 심사관 워크숍에서 고정식 특허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계 특허 심사에도 '코리아 강풍'

'제1회 IP5 심사관 워크숍'… 특허 분야 선진 5개국 한자리에

글로벌 경제 협력에 주요 20개국(G20)이 있다면, 글로벌 특허 협력에는 IP5가 있다. 우리 특허청 주재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제1회 IP5 심사관 워크숍'은 특허 분야 선진 5개국 체제(IP5)의 실질적인 출범을 알렸다.

국가 간 특허심사 협력을 위해 특허 분야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34개국 · 일명 IP5)의 베테랑 특허 심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주도해 10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열린 'IP5 심사관 워크숍'은 기존 미국, 일본, 유럽 3개국 위주의 특허 선진국 체제를 한국과 중국이 포함된 5개국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워크숍에는 기계, 화공, 정보통신 등 기술 분야별로 5개국의 대표 심사관 3명씩 모두 15명이 참석해 각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IP(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는 발명, 상표, 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한다.

중복 출원 조정 등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세계 특허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각국의 중복 출원에 따른 조정과 협력의 문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2007년 기준)는 1백85만여 건. 이중에서 지금까지 IP5에서 출원한 특허는 1백40만여 건으로, 전 세계 건수의 85퍼센트에 달한다. 이중 30퍼센트에 해당하는 42만여 건이 IP5에서 중복 출원됐고, 중복 건수가 점점 느는 추세여서 심사 대기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또 각 나라별 특허 심사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특허 획득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서로 다른 심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출원인들의 불편이 컸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1년 전 제주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IP5 간 심사 협력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10개 기반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각 과제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검토해보는 첫 자리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우리 특허청 주재로 열린 행사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지식재산 분야의 G5격인 IP5 행사를 주도함으로써 국제 특허 환경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번 워크숍 개최로 기대되는 성과는 크게 세 가지다. △5개국 간 심사 기준을 논의해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의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5개국 전체 특허 출원 건수의 30퍼센트인 중복 출원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사하며 △기업의 경우 선진국시장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허청 박종효(53) 전기전자심사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IP5 체제가 출범한 것에 대해 "특허출원 건수에서 한국이 세계 4위, 중국이 세계 3위로 빠르게 성장해 기존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의 IP3 체제의 협력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우리 특허청이 제안한 IP5 심사관 워크숍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IP5 체제가 출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G

글 · 최은숙 기자


4대강 살리기
제27화
뭐라고?
글·이연수 그림·이호
여태껏 공부만 했던 네가 뭘 땜시 돌아온다는겨?
과수원 농사가 우스워 보이나벼.
봄부터 여름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흉작이면 흉작이라 마음고생, 풍작이면 풍작이라 마음고생 해야 허는디….
도시에서 공부했으면 도시에서 출세할 생각을 혀!
아버지! 저 농과대학 나왔잖아요!
그럼 어디 농과 출신 뽑는 데로 취직하믄 되잖여!
아버지! 금수강촌 프로젝트를 모르시나요?
금수강촌?
금수강산이 아니고?
웰빙마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에요. 특화작물 재배를 육성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 첨단기술과 경관농업, 식품서비스 산업을 종합하는 신농업단지를 조성한대요.
뭐가 그리 많은겨?
전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살기 좋은 농촌을 가꾸는 데 제 젊음을 바치고 싶다고요!
4대강이랑 금수강촌 그게 좋은 거긴 한가벼.
그라게. 옆집 아들도 돌아온다더니 그래서 오는구먼.
배 특화마을 한다기에 왔슈.
소수력 발전소 관리할 사람 뽑는다고 해서 온겨?
지가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전문가잖유.
아이고
우리 딸이 왔네.
우리 아들
허허

조달업체 대출 도우미 네트워크론

계약서만 있으면 계약금 80%까지 대출



일러스트 · 채홍석

네트워크론은 담보능력이 없어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달업체가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별도의 담보나 보증서 없이 계약금액의 80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태경이엔지는 꾸준한 기술개발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다. 특히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우수제품인증을 받은 '진공흡입식 살수차'는 아스팔트 틈새의 미세먼지와 혼합된 물까지 흡입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 기능을 보유해 서울시와 산하 구청으로부터 큰 인기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품구입비 등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태경이엔지 박태익 대표는 "부품 공급업체들도 대부분 영세해 현금결제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달청이 발급하는 물품계약서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네트워크론을 활용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태경이엔지는 최근 5차례에 걸쳐 이뤄진 공공기관의 물품계약서만으로 조달청과 네트워크론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순항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주문이 들어와도 생산자금이 넉넉잖아 물건을 만들 수 없다면 이것만큼 속 타는 일이 또 있을까.

이럴 때 조달청 네트워크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론은 담보능력이 없어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달업체가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계약금액의 80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다. 또 별도의 담보나 보증서도 필요 없다.

조달청 계약, 대지급하는 모든 계약 해당

네트워크론 대상은 조달청이 계약하고 조달청이 대지급하는 모든 계약으로,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닌 3천만원 미만의 물품제조계약과 물품공급계약도 포함된다. 단, 시설공사는 제외된다. 대출 희망업체는 해당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체결확인서를 신청한 후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계약체결확인서 발급을 확인하고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경남, 국민, 광주,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일, 제주, 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통해 네트워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론은 2006년 7월 시행된 이래 2009년 9월 현재 총 3천1백97건, 금액으로는 2천9백24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했다.

조달청 천룡 구매사업국장은 "네트워크론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는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을 시험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네트워크론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조달청 www.pps.go.kr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스 갈아타세요

호남 · 영동 고속도로 4곳 휴게소 환승 정류소 11월 시범 운영

고속도로 노선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중소도시 주민들의 타 지역 이동이 한결 편리해진다.
정부는 정안휴게소(호남축)와 횡성휴게소(영동축)를 고속버스 환승 정류소로 지정하고 11월 초부터 시범 운영한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이선아(가명) 씨는 시댁인 광주광역시까지 가는 일에 매번 스트레스를 받는다. 승용차를 타고 가자니 길이 막히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자니 터미널이 있는 서울까지 가기 위해 1시간 이상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승용차를 타고 시댁을 다녀오느라 왕복 14시간을 길에 뿌렸다.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수도권 중소도시 주민들은 11월 2일부터 횡성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 씨처럼 고속버스 노선이 없거나 노선 수가 적은 중소도시 주민들은 11월 2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 정류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 용인, 의정부 등 수도권 중소도시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대도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고속버스 노선이 서울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데다 중소도시까지 오가는 노선 수와 운행 횟수도 적은 탓이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노선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중소도시에서는 고속도로 이용 기피현상이 두드러졌다.

고속버스사업자 8개사 1백45개 노선 중 서울을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73개 노선에 달한다. 반면 중소도시 고속버스 운행 노선은 평균 3개에 불과하다. 운행 간격도 서울↔광주의 경우 5~10분마다 운행하는 반면, 고양↔광주 노선은 80분마다 운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노선은 3시간 간격으로 운행해 고속버스 이용을 어렵게 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버스 주요 거점 휴게소인 정안휴게소(호남고속도로)와 횡성휴게소(영동고속도로) 상·하행 네 곳을 고속버스 환승 정류소로 지정하고 11월 2일부터 주중(월~목요일)에 한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하는 노선은 12개 노선으로 고속버스 노선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이들 시범 노선과 연결된 환승 휴게소에서 갈아타면 38개 노선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요금 · 시간 · 운행거리 모두 줄어

고속버스 승객이 노선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갈아타는 불편을 해소함에 따라 이용 시간은 평균 약 47분, 운행거리는 약 35킬로미터 단축된다. 아울러 요금도 평균 2천5백원(일반고속 2천원, 우등고속 3천원) 정도 절감된다.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고칠진 과장은 "고속버스 휴게소를 환승 정류소로 운영하면 중소도시 주민들의 타 지역 이동이 편해질 뿐 아니라 고속버스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승 휴게소 및 환승 노선 확대는 이번 시범 운영의 효과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Tel 02-2110-8675

또 하나의 코리안 드림

농구 코트에도 다문화 바람

우리나라가 이미 다문화사회임을 보여주는 곳 중 하나가 농구 코트다. 10월 15일 개막한 2009~2010 프로농구 제전에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다문화 선수들이 있다. 어느덧 농구계의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선수들, 올 프로농구 시즌에도 이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2009~2010 프로농구가 10월 15일 막을 올렸다. 정규리그는 총 2백70경기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이다. 10개 팀 중 상위 6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 챔피언 결정전 진출자를 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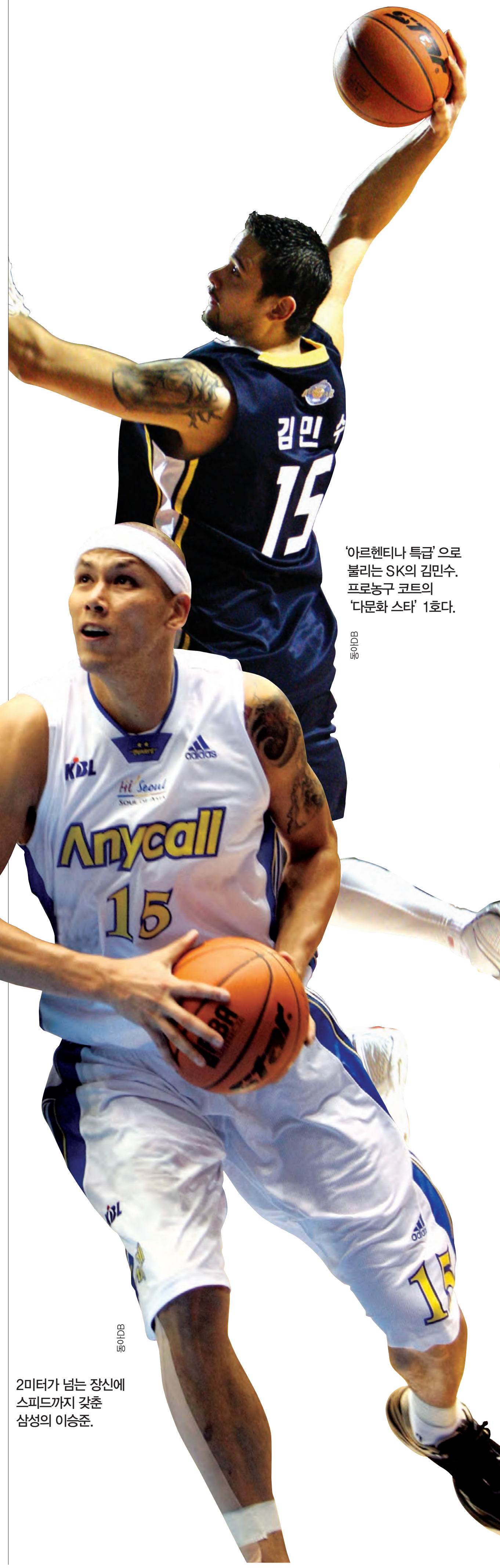
농구 전문가들은 지난해 챔프전에서 격돌했던 전주 KCC와 서울 삼성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고 있다. 이 팀들이 올해 초 실시한 '귀화 혼혈 선수 드래프트'에서 종전의 약점을 메울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을 선발했기 때문이다. 이 드래프트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선수들이 귀화를 전제로 참가했다. 한국농구연맹(KBL)이 '보는 재미'를 더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한 첫 드래프트였다.

KCC는 전태풍(29·가드)을 선발해서 약점이었던 포인트가드를 보강했다. 삼성은 이승준(31·포워드)을 뽑아서 높이의 약점을 메웠다. 전태풍과 이승준은 뛰어난 기량으로 돌풍을 준비하고 있는 어엿한 한국인이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귀화 혼혈 드래프트'에서는 총 5명의 선수가 선발됐다. 그리고 이미 지난 시즌 이승준의 동생인 이동준(29·오리온스)과 '아르헨티나 특급' 김민수(27·SK)가 다문화 스타로 미리 자리매김했다. 한국 남자농구는 본격적인 다문화시대에 접어들었다.

"아, 어머니!" 어머니 나라에 함께 정착하는 게 공통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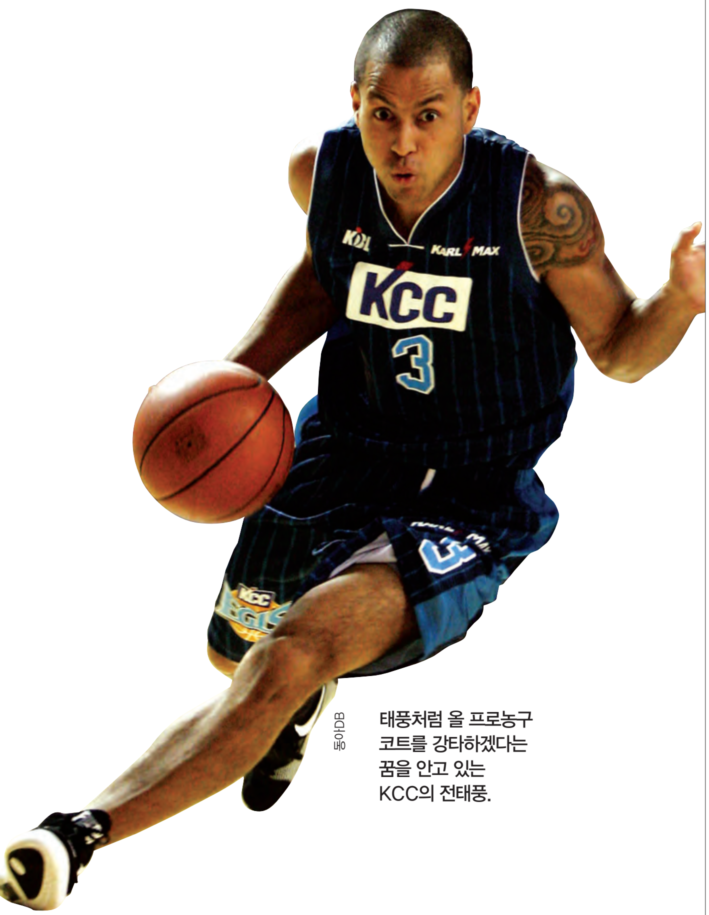
이번 시즌 프로농구에서 뛰는 다문화 선수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미리 귀화한 뒤 대학을 거쳐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데뷔한 이동준, 김민수는 '대학파'에 속한다. '귀화 혼혈 드래프트'를 거쳐 곧바로 프로무대에 데뷔한 이들도 있다. 전태풍과 이승준을 비롯해 문태영(31·LG), 박태양(23·KT), 원하준(29·KT&G)까지 총 5명이다.

김민수는 2002년 '대학 다문화 선수 1호'로 화제를 모았다. 아르헨티나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아르헨티나에서 자란 김민수는 고무공 같은 탄력을 갖춘 포워드다.



'아르헨티나 특급'으로 불리는 SK의 김민수. 프로농구 코트의 '다문화 스타' 1호다.
동아DB

2미터가 넘는 장신에 스피드까지 갖춘 삼성의 이승준.
동아DB



동아DB

태풍처럼 올 프로농구 코트를 강타하겠다는 꿈을 안고 있는 KCC의 전태풍.



코트를 누비는 다문화 선수들이 단지 생김새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남다른 운동능력과 신체조건을 지닌 데다 개인기가 뛰어난 이들은 전력의 핵심이다.

경희대 재학 시절부터 뛰어난 실력으로 관심을 모았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이동준은 200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연세대를 거쳤다. 김민수와 이동준은 지난 시즌 프로무대에서 신인으로서 큰 활약을 보였다.

이동준의 형이자 당초 이동준보다 한 수 위의 실력으로 주목받았던 이승준은 2007년 모비스에서 외국인 선수로 뛴 적도 있다. 삼성에 입단하면서 "기량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가 한 명 더 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화제를 모았다. 전태풍은 "한국 농구에 태풍을 몰고 오라는 뜻으로 사촌동생이 한국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다. KCC의 라이벌인 삼성의 안준호 감독마저 "그야말로 태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승준은 호쾌한 덩크슛이, 전태풍은 다이내믹한 공격력이 장점이다.

다문화 선수들의 코리안 드림에는 '어머니'가 빠지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정착하는 게 이들의 공통된 꿈이다. 다문화 선수들은 한국 이름을 지을 때 어머니 성(姓)을 따랐다.

김민수의 어머니 김윤숙(56) 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 영구 귀국했다. 김민수는 "꿈이 이뤄졌다. 더 열심히 뛰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세 아들을 키웠다. 과거 정육점에서 일하던 도중 왼쪽 손가락이 거의 잘려나가 한쪽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 김민수는 2006년 한국 대표팀에 처음 뽑혔을 때 대표팀 유니폼을 아르헨티나의 어머니에게 보냈고, 어머니는 태극마크가 선명한 아들의 유니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들 모자는 서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서툰 한국말에 동료들 폭소… "한국서 뛰는 게 행복해"

이승준·동준 형제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 미국 시애틀에서 한국식당을 하는 어머니 이점옥(57) 씨 덕분에 이들 형제는 매운 한국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이승준은 왼쪽 팔에 호랑이 두 마리가 산에 오르는 문신을 새겼다. "호랑이는 나와 동준이고, 산에 오르는 것은 한국에서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라는 설명이다.

원하준은 한국팀을 선택한 게 바로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였다. 어린 시절 헤어져 얼굴도 모른 채 이름만 알고 있는 어머니를 수소문해봤지만 결국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어머니가 10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KT&G 관계자들은 원하준의 안타까운 '사모곡'에 함께 가슴 아파했다.

이번 시즌 코트를 누비는 다문화 선수들이 단지 생김새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각 구단들은 남다른 운동능력과 신체조건을 지닌 데다 개인기가 뛰어난 이들을 전력의 핵심으로 여긴다. 또 KBL은 이들의 개인 스토리와 농구 실력이 프로농구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문화 선수들은 대부분 아직 한국말이 서툰 데다 한국식 위계질서와 조직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데 힘겨워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들의 서툰 한국말 때문에 팀에서는 폭소가 터질 때도 있다. 존댓말을 아직 완벽하게 익히지 못한 탓에 '감독님'이 아니라 그냥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고 인터뷰하는 선수를 보고 구단 관계자가 화들짝 놀라기도 한다.

하루 4, 5시간씩 한국어 책을 붙들고 있는 전태풍도 여전히 한국어 인터뷰가 힘겨워 영어를 섞어서 말한다. 이동준은 "미국에서는 즐기기 위해 농구를 했는데, 때로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농구만 하는 한국 동료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들은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꿈을 꾸면서 한국무대에서 뛰는 게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농구 코트 위에서 뛰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다. 이승준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가 돼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싶다"고 말했다. G

글 · 이미경(중앙일보 스포츠부 기자)



붉거나 혹은 투명하거나… 와인의 유혹

짜릿한 첫 만남에서 설레는 마지막까지

국내 와인업계의 프런티어로 꼽히는 최성순 와인21닷컴 대표가 책을 펴냈다. 와인 애호가에서 와인 사업가로 변신한 저자가 펴낸 초보자용 와인 가이드북 〈와인 공감〉이 그것이다.



최성순(43) 와인21닷컴 대표의 이력에는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는다. 국내 최초의 '와인 메이커스 디너(Wine Maker's Dinner)' 도입(1999), 국내 최초의 '보졸레 누보 파티' 개최(2000), 국내 최초의 '와인 벼룩시장' 개설(2007) 등. 11년 전 와인 포털 사이트인 와인21닷컴을 개설한 이후 최 대표가 세운 기록들이다. 그는 국내 수입 와인의 80퍼센트인 8천 종의 와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와인 이벤트를 기획 진행하는 와인21닷컴 운영자, 와인 칼럼니스트, 국세청의 '주류품질 인증제'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최 대표가 이번에는 초보자용 와인 가이드북 〈와인 공감〉을 펴냈다. 전문가인 그가 초보자용 책을 펴낸 것은 자신이 '와인 공부 노트'를 만들어 공부하던 생초보 시절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탄탄한 기본서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제가 외국 출장길에서 와인을 알게 된 것이 1995년 무렵이에요. 당시만 해도 국내에 와인 스쿨은커녕 와인 책이나 정보도 거의 없던 때라 외국 정보를 샅샅이 뒤져서 와인 공부 노트를 만들고 PC통신의 와인 동호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생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마시는 사람 생각한 와인 가이드북

저자가 내세우는 〈와인 공감〉의 장점은 와인을 마셔온 경험을 토대로 와인을 마시는 사람을 생각하며 책을 썼다는 것이다. 와인 전문가들이 펴낸 책들은 많지만 문외한에서 시작해 와인을 즐기게 된 자신처럼 체험을 우려내 쓴 책은 드물다.

와인의 품종과 산지, 와인 파티,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 와인과 건강 등 기본 정보를 충실하게 소개한 내용 중에서도 특히 호응을 많이 얻은 부분은 '초보자를 위한 맛있는 와인 51가지'다. 지인들과 51가지를 일일이 시음해 1단계 왕초보부터 5단계 마니아까지 권하는 와인을 소개, 와인 쇼핑 길의 좋은 동반자가 되고 있다.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와인이 자주 등장하고, 한식당에서도 와인을 취급할 만큼 국내 와인 시장이 성장했다는 점에서 최 대표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그가 진단하는 국내 시장의 수준은 걸음마를 막 뗀 초보 단계. 국내 와인시장 규모가 전체 주류 시장의 2~5퍼센트 정도이고, 품격 있는 와인문화가 채 성숙하지 않았다는 진단 때문이다.

평소 어떤 와인을 즐기느냐는 물음에 최 대표는 특정 브랜드명보다 그때그때 타이밍과 사람들에게 적절한 와인을 추천한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와인이 생각나요. 그날 만나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생각나는 와인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와인과의 만남은 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외국 출장길에 와인에 끌려 와인 마니아 겸 와인 사업가가 된 최성순 와인21닷컴(wine21.com) 대표. 최 대표는 10월 23일 서울 광화문의 한 레스토랑에서 출판 기념회 겸 초보자용 와인 51가지를 시음하는 파티를 열었다.

종이 똥의 향기

글과 그림·최영순



이성은 걷고 감성은 달린다. 그러나 상상력은 날아간다.
– 프랑스 속담



김갑수 씨는 "이 책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생각의 바다를 헤엄쳐라 진리의 끝에 닿을 때까지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는 '사람을 먹으면 왜 안 되는가?'라는 책을 추천하며 '사유 행위'를 통한 삶의 진리 찾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두컴컴한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줄라이홀'이라 이름 붙인 문이 보였다. 슬그머니 문을 밀고 들어가자 족히 몇 만장은 넘어 보이는 LP판과 여기저기 쌓여 있는 책, 음향기기 그리고 천장에 빼곡히 붙어 있는 음향 분산재들이 눈에 띄었다. 세상과 차단된 은밀한 아지트 같은 이곳은 시인, 문화평론가, 음악칼럼니스트, 출판평론가, 방송인 등 다양한 직업을 지닌 김갑수(51) 씨의 작업실이다.

음악을 듣고 책을 읽기에 안성맞춤인 이 작업실에서 그는 음악과 책을 통해 "다양한 내적 고민을 거쳐 근원적인 지식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그가 읽고 있는 책은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을 먹으면 왜 안 되는가?>다. 영국에서 작가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피터 케이브가 지은 이 책은 33가지의 철학 퍼즐이 담긴 실용 철학서다.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난다' '강은 똑같지만 강물은 다르다?' 등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철학적 명제들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짤막짤막한 이야기로 구성된 이 책을 읽다 보면 '도대체 왜'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하는 의문만 들 뿐 확실한 정답을 얻긴 힘들다. 김 씨는 "이 책의 묘미는 바로 그 점에 있다"며 "책을 읽는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인 '생각하는 것', 즉 '사유 행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꼽았다.

"인터넷, TV 등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매우 불편한 책입니다. 한 챕터를 읽고 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결론도 내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 책은 똑떨어지는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조금 복잡해도 사고하고 철학해서 지혜 깨달아야"

그는 '네가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챕터를 예로 들면서 "인간이 갖는 '자유'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책에는 무슬림인 자히라가 이웃집 여자 맨디의 일광욕 하는 모습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례가 등장한다. 그러나 자히라가 맨디에게 어떤 대단한 위해를 입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다. 사람들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무수한 가치와 규범 중 어떤 것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 없는 철학 퍼즐을 하나둘씩 생각하며 풀어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잡하고 정의 내릴 수 없듯이 자신의 머리로 사고하고 철학하는 태도를 통해 삶의 지혜를 깨달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조선시대 '판서'는 어떻게 탄생했나



일러스트 · 이우정

장관이라고 하면 그저 위계질서상의 최고(長) 자리(官)라는 뜻이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다. 차관(次官)은 말 그대로 장관 다음(次) 자리라는 뜻이다. 이어 차관보(次官補)는 약간의 뜻이 가미되어 차관을 보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관, 차관, 차관보에 각각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관직명은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다. 이 자리는 모두 조선의 골격을 세운 제 3대왕 태종의 관제개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판서, 참판, 참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곧 조선 특유의 정치와 행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누구보다 고려 관제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던 태종은 권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태종 5년(1405) 1월 15일 고려 때의 제도로 운영되던 관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천지개벽 수준이었다. 원래 6조는 별도의 책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정부의 좌우 정승이 각각 3조씩 나눠 판사(判事)라는 이름으로 겸하고 있었다. 6조의 장은 전서(典書)라고 하여 정3품이었고 정승들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었다. 정치(의정부)가 행정(6조)을 지배했던 것이다.

의정부가 강해지면 왕권은 약해진다. 태종이 문제로 보았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태종의 관제개혁의 핵심은 6조 기능 강화를 통한 왕권 강화였다. 그 개혁안을 보면 의정부에서 하던 대다수 업무를 6조로 귀속시켰고 6조에는 정2품 판서(判書)를 두도록 했다. 의정부의 참찬(參贊), 한성부의 판윤(判尹), 홍문관의 대제학(大提學)과 더불어 정경(正卿)으로 불린 6조 판서는 국왕과 더불어 국정(國政)을 논의할 수 있는 지위였다.

정3품 전서를 정2품 판서로 높인 태종의 깊은 뜻도 바로 실무행정을 책임지는 판서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판서(判書)라는 관직명에도 그와 같은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직접 판단(判)하고 결재하여 집행(書)하는 자리라는 뜻이다.

6조의 등장으로 고려 때부터 태종 초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의정부(議政府), 사평부(司平府), 승추부(承樞府)는 크게 위축됐다. 의정부가 관할하던 1백여 개의 각 사(司)들은 업무 성격에 따라 6조로 분속됐다. 여기에 전곡(錢穀) 회계권을 갖고 있던 사평부는 혁파되고 그 권한은 호조에 귀속됐다. 병권을 갖고 있던 승추부도 혁파되어 그 권한은 병조로 넘어갔다. 문무관 인사권을 갖고 있던 상서사(尙瑞司)도 혁파되어 문관 인사권은 이조로, 무관인사권은 병조로 이관됐다. 이로써 국왕–의정부–6조로 일원적인 관제가 탄생함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체제가 출현할 수 있었다.

태종 5년 6조 기능 강화로 왕권 강화 꾀해

태종 5년 관제개혁 당시에는 판서 아래에 전서(典書)를 없애는 대신 종3품에 해당하는 좌우 참의(參議) 두 자리를 두어 판서를 보좌토록 했다. 그 뜻은 현안에 관한 토의(議)에 참여(參)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아래 정랑(정5품)과 좌랑(정6품)도 설치했다. 그중 이조정랑과 좌랑은 신진 관리들의 인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먼 훗날 당쟁의 진원지로 주목받기도 했다.

판서, 참판, 참의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은 참판이다. 태종 16년, 이조에서 두 명씩 있는 6조 참의를 한 명씩 줄이는 대신 종2품 참판을 한 명씩 둘 것을 건의하자 태종은 받아들인다. 하지만 실상은 태종이 먼저 지시를 내린 것을 이조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올렸다고 봐야 한다. 관제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종 자신의 구상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조선 사람들은 임금은 상감(上監), 정2품 이상은 대감(大監), 정3품 당상관 이상은 영감(令監)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모두 나리라고 불렀다. 판서는 대감, 참판과 참의는 영감이었던 셈이다. G

뮤지컬로 다시 태어난 태권도

익스트림 태권도 뮤지컬 '타타 IN 붓다'

일시	11월 22일(일)까지 화·수·목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5시 30분, 8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8시 30분, 일요일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02-3674-1010 www.ntok.go.kr


정경택 기자

국기(國技) 태권도를 소재로 한 뮤지컬 '타타 IN 붓다'가 공연계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뮤지컬은 2천5백년 전 인도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난 싯다르타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현대적으로 포장한 작품이다.

시나리오는 문헌에 등장하는 노예출신 장수 '타타'라는 인물을 통해 과거 어느 국가에서나 경험했을 노예들의 비인간적인 삶을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명쾌한 내용의 픽션이다. 총 3막 22장으로 구성된 뮤지컬은 모든 신(Scene)을 태권도로 표현한다. 그 어느 무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태권도의 아름답고 수려한 품세, 절도와 기품이 넘치는 태권도의 각종 기술들이 완벽한 무대, 음향, 조명, 의상 등과 어우러져 긴장감 넘치는 예술작품으로 탄생했다.

음악은 태권도의 기품을 고려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만들어졌다. 22곡이 이 무대를 위해 새롭게 작사, 작곡됐다. 출연배우 35명은 전원이 태권도 유단자들이다. 10년 이상 태권도를 연마한 이들은 탁월한 기본기에 연기력까지 더해 관객의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출연자는 35명이지만 의상은 1백20벌이 제작됐다. 출연진 중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들은 혼자서 여러 배역을 맡기 때문이다. 뮤지컬을 기획한 연출자 백재현 씨는 "의상 안에는 태권도 기술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다"며 "이 작품은 태권도의 예술적 가치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G 글·김지영 기자

창극 '적벽'

일시	10월 29일(목)~11월 1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8시,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국립창극단은 우리 시대의 창극 네 번째 작품으로 남성 창극의 백미인 '적벽'을 선정했다. 영웅호걸들의 이야기인 만큼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가장 호방하고 힘찬 남성적 소리로 소리꾼들이 제일 소화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적벽가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이윤택 씨는 적벽가에 대한 기존 틀을 깨면서 새롭게 시도되는 미학 기법과 조명, 영상, 무대를 통합한 미장센을 통해 이윤택표 창극의 진수를 선보인다.

연극 '리체르카레'

일시	10월 29일(목)~11월 1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일반인 5만원, 청소년 3만원
문의	02-3673-2561~4 www.sac.or.kr



2009년 제11회 유럽연극상 뉴리얼리티상 수상에 빛나는 연출가 프랑수아 탕기의 공연이 한국에 상륙한다. 이 작품은 문학, 음악, 무용, 컨템퍼러리 연극에서 미술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미 20여 개 국가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탕기와 라도 극단이 제시하는 비전형적인 무대, 독특한 색감의 실험들은 폭발적인 카타르시스와 함께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감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큰 대한민국
2010 G20 코리아



한 · EU FTA로 우리 상품이 유럽시장에 활짝 핍니다!

대한민국이 경쟁 국가들을 제치고
GDP 18조 4천억 달러(2008년 기준)의 세계 최대 경제권 EU를 선점합니다.
보호무역 추세를 극복하고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한 · EU FTA!
한 · EU FTA로 유럽 27개국 시장을 우리 상품이 꽉 채웁니다.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크고 작은 홍수를 겪었습니다

속타는 가뭄도 만났습니다

은어가 펄떡이는 강은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더러워진 강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살리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